

부록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발굴조사보고서 제20집

도림-동회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부록. 제주 향파두리 향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제주 회천동 유적 (1035-2번지)

The Jeju Hoecheon-dong Site

2012

재단법인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도련-동화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濟州 回泉洞遺蹟

- 1035-2番地 -

2012

제주문화유산연구원

	목 차	
contents	I. 머리말	9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3
	1. 지리적 위치와 환경	15
	2. 고고학적 환경	15
	3. 회천동 마을의 형성과 그 연혁	23
	III. 조사방법 및 층위	27
	1. 조사방법	29
	2. 층위	29
	IV. 조사내용	31
	1. 수혈유구	33
	1) 1호 수혈유구	33
	2) 2호 수혈유구	33
	3) 3호 수혈유구	35
	4) 4호 수혈유구	35
	5) 5호 수혈유구	36
	6) 6호 수혈유구	37
	7) 7호 수혈유구	39
8) 8호 수혈유구	39	
9) 9호 수혈유구	40	
V. 맺음말	45	
도판	49	
보고서 초록	59	
	부록	
	제주 향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시굴조사 보고서	61

contents

도면목차

- 도면 1. 조사대상지 일대 지형 및 용천수 분포현황(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1/5,000 참조) _ 17
- 도면 2.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통 분포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에서 일부 수정) _ 17
- 도면 3.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이용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_ 18
- 도면 4.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토성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_ 18
- 도면 5. 조사대상지 주변 지질도(1/25,000) _ 19
- 도면 6. 조사대상지 주변 지적도 _ 19
- 도면 7. 조사대상지의 위치 및 주변유적 현황도(국토지리정보원 1/25,000 참조) _ 20
- 도면 8. 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33
- 도면 9.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33
- 도면 10.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_ 34
- 도면 11.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35
- 도면 12. 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35
- 도면 13. 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36
- 도면 14. 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_ 37
- 도면 15. 6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38
- 도면 16. 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39
- 도면 17. 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40
- 도면 18. 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_ 41
- 도면 19. 9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_ 42

삽도목차

- 삽도 1. 회천동유적 위성사진(출처 : 네이버 지도) _ 16
- 삽도 2. 회천동유적 위성지형도(출처 : 구글맵스) _ 16
- 삽도 3.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천미촌(泉味村)과 세초촌(細草村) _ 23
- 삽도 4. 1709년 1월부터 1716년 사이에 제작된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해동지도(海東地圖)』에 나타난 천미촌(泉味村) · 매둔지촌(每敦地村) · 도련평촌(道連坪村) · 세은쇄촌(細殷刷村) _ 24
- 삽도 5. 1872년에 제작한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그스네오름[曳川岳], 세천리(細泉里), 세미오름[思美岳] _ 25
- 삽도 6. 1919년에 제작한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도래세미모을[回泉里], 7는세미모을[細味洞], 세천동(細泉洞), 드르생이모을[野生洞] _ 26
- 삽도 7. 회천동 절터 전경 _ 26
- 삽도 8. 조사대상지 남동쪽 토층 단면 _ 29

contents

도판목차

- 도판 1. ① 조사대상지 원경 ② 전경(공중촬영) _ 51
- 도판 2. ① 조사대상지 전경(동에서) ② 동편 유구밀집 지역(동에서) _ 52
- 도판 3. ① 1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② 조사중 전경 ③ 조사완료 전경(남에서) ④ 2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⑤ 조사중 전경 ⑥ 조사완료 전경(남에서) ⑦ 3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⑧ 조사중 전경(북에서) _ 53
- 도판 4. ① 3호 수혈유구 토층 단면 ②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③ 4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④ 조사완료 전경(남에서) ⑤ 5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⑥ 조사중 전경 ⑦ 조사완료 전경(동에서) ⑧ 6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북에서) _ 54
- 도판 5. ①~② 6호 수혈유구 조사중 전경 ③~④ 유물 출토 모습 ⑤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⑥ 출토유물 _ 55
- 도판 6. ① 7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② 조사중 전경 ③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④ 8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⑤ 조사중 전경 ⑥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⑦ 9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⑧ 조사중 전경(북에서) _ 56
- 도판 7. ① 9호 수혈유구 유물 출토 모습 ②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③ 출토유물 _ 57
- 도판 8. ①~② 현장설명회 모습 _ 58

표목차

- 표1) 신석기시대 주변유적 현황 _ 21
- 표2) 청동기시대 주변유적 현황 _ 22
- 표3) 탐라성립기 주변유적 현황 _ 22
- 표4) 고려시대 주변유적현황 _ 23

일러두기

1. 본 보고서 도면의 방향표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유구의 토층도 및 단면도에 표시된 수치는 해발고도를 나타낸 것이다.
 3. 도면의 축소비는 유구의 경우 수혈유구 1/30, 유물은 토기 1/2, 석기 1/2·1/4를 원칙으로 하였다.
-

I. 머리말



I. 머리말

본 보고서는 제주시 회천동유적의 발굴조사보고서로 2008년 제주시에서 추진했던 도련·동회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확인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것이다. 이 사업대상지에 대한 지표조사는 2008년 제주문화예술회관 문화재연구소에 의해 이루어졌다¹⁾. 지표조사 결과 회천동 1035-2번지 외 5개번지에서 고려·조선시대의 유물산포지가, 도련 1동 150번지에서는 탐라시대 적갈색경질토기편이 수습되어 각각 분포조사와 입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문화재청에서는 이에 대해 회천동 1035-2번지는 분포조사를, 도련 1동 150번지에 대해서는 입회조사를 실시할 것을 통보(문화재청 발굴조사과-5658(2008.05.01))하였다. 이에 제주시 도시과에서는 회천동 1035-2번지에 대한 분포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조사를 의뢰하여 분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조사결과 지면의 동서 양단으로 발달된 암반층 사이의 문화층에서 수혈 1기와 다수의 주혈이 확인되었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10년 2월 3일 지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였다. 그 결과 동·서 양단의 암반층 사이에 토양퇴적상태가 양호한 길이 60m, 폭 11m의 범위에 대해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시 도시과에서는 조사가 필요한 660㎡에 대한 발굴조사를 우리 연구원에 의뢰하였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문화재청 발굴허가(제2010-147호)를 득한 후 2010년 3월 31일부터 2010년 4월 30일까지 실조사일수 10일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발굴조사 결과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수혈유구 9기가 확인·조사되었으며 중주어골문, 사선문, 무문양토기편 등 소량의 유물이 출토되었다. 조사과정의 마무리 시점인 2010년 4월 13일 지도위원회회의를 개최하여 발굴조사에 따른 유적의 성격과 보존방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논의하였다. 회의결과 조사된 유구는 신석기시대 초기의 시설물이며 해안에 위치한 삼양동유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지만 유구의 밀도가 낮고 일부 도로공사 진행으로 인한 보존상태 불량으로 인해 발굴조사 종료 후 기록보존을 철저히 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공사를 시행하여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유구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복토작업을 실시한 후 2010년 4월 30일 조사를 완료하였다.

발굴조사 당시 조사단구성은 다음과 같다.

- 조사단장 : 고재원(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실장)
- 지도위원 : 권상열(국립제주박물관장)
김창화(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 책임조사원 : 방문배(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연구부장)
- 조사원 : 윤중현(前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조사팀장)
- 조사보조원 : 이용석(前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보조원 : 박경민(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1) 제주문화예술회관 문화재연구소, 2008, 「제주시 동·서회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구간내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본 보고서 내의 유구원고와 유물원고는 현장조사에 참여한 조사원을 중심으로 초고를 완성했으며 방문배가 이에 수정·가필하였고 고재원이 감수하였다. 보고서의 작성과 관련한 참여자 및 각종 업무의 분담은 다음과 같다.

- 유물정리·복원 및 실측: 윤중현, 이용석, 박경민
- 유물사진촬영: 이용석
- 유구·유물 일러스트: 박경민, 이정하(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전산·편집: 고은경(제주문화유산연구원 연구원)
- 원고작성
 - I. 머리말: 방문배
 -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방문배, 윤중현
 - III. 조사방법 및 층위: 방문배
 - IV. 조사내용
 - 유구: 방문배, 윤중현
 - 유물: 방문배, 윤중현
 - V. 맺음말: 방문배

분포조사와 발굴조사의 추진에 행정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신 제주시 도시과에 감사를 드리며, 조사 중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의 문화유적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이셨던 동회천 마을어르신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시간을 내어 현장을 찾아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권상열관장님과 김창화선생님에게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주야로 이어지는 현장조사와 보고서작성작업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II. 유적의 위치와 환경

1. 지리적 위치와 환경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1035-2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북위 33° 30' 24.6", 동경 126° 36' 48.7"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약 75m 가량이며 해안과의 직선거리는 약 3km 떨어져 있는 중산간지대와 해안저지대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지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m 가량 떨어져 '새미' 라고 불리는 용천수가 자리하고 있다. 북서쪽으로 약 2.3km 떨어져 원당봉(해발 171m)이 위치하고 있으며 서편으로 약 1.3km가량 떨어져 음나물네가 원당봉 서편 자락을 지나 해안으로 연결되고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의 지형은 조사대상지를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은 지대가 높고 남에서 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계곡부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대상지 주변의 토지이용 상태를 보면 과수원과 밭농사가 대부분이다. 조사대상지의 토양²⁾은 오라통으로 현무암에 기인된 화산회를 모재로 한 토양으로 용암류대지에 분포된 토양이다. 표토는 농암회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이며 심토는 암황갈색의 자갈이 있는 미사질양토 또는 미사질식양토이다.

2. 고고학적 환경

발굴조사 이전에 조사대상지가 속해있는 회천동(回泉洞)에는 선사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이 확인된 예가 없지만 조사대상지를 중심으로 절터로 추정되는 유물산포지가 확인되고 있다. 회천동은 선사유적지인 삼양동유적군³⁾, 삼화지구내유적⁴⁾, 도련동 지석묘 등과 2~3km 내외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마을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샘물이 많이 있어 음용수 획득에 용이한 입지를 갖고 있다.

제주도의 신석기시대 유적의 입지는 크게 해안 평탄지대와 내륙 중산간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해안 평

2)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연구소, 1976, 「한국정밀토양도-제주도」.

3) 제주대학교박물관, 2001, 「제주삼양동유적-Ⅱ·Ⅲ지구」,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2002, 「제주삼양동유적-Ⅰ·Ⅳ지구」, 제주대학교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2006, 「제주 세무서 사택부지내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문화예술회관, 2006, 「삼양유원지 조성사업 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제주문화예술회관.

국립제주박물관, 2007, 「제주시 삼양2동 2132-1번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국립제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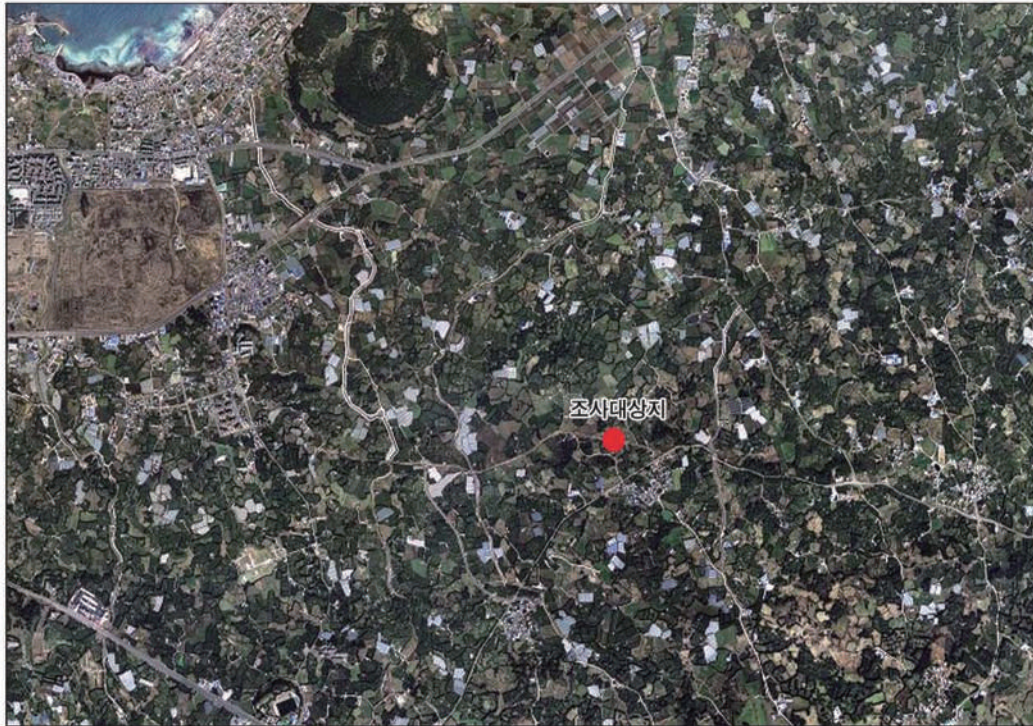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양1동 1249-7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호남문화재연구원, 「제주 도련동유원묘」, 호남문화재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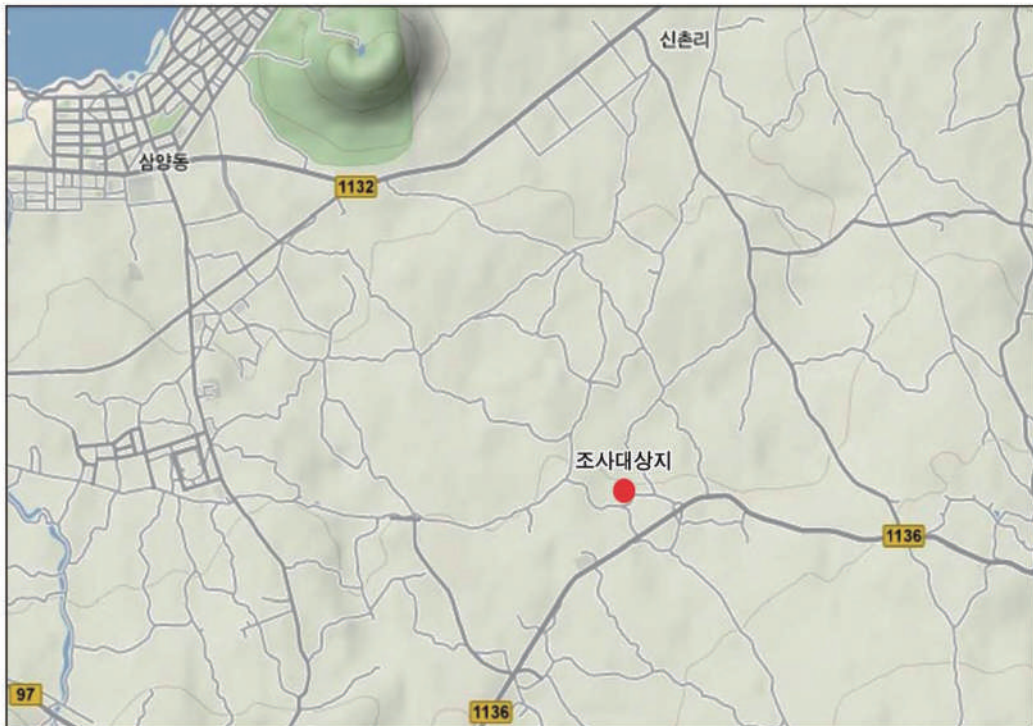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9, 「제주 삼양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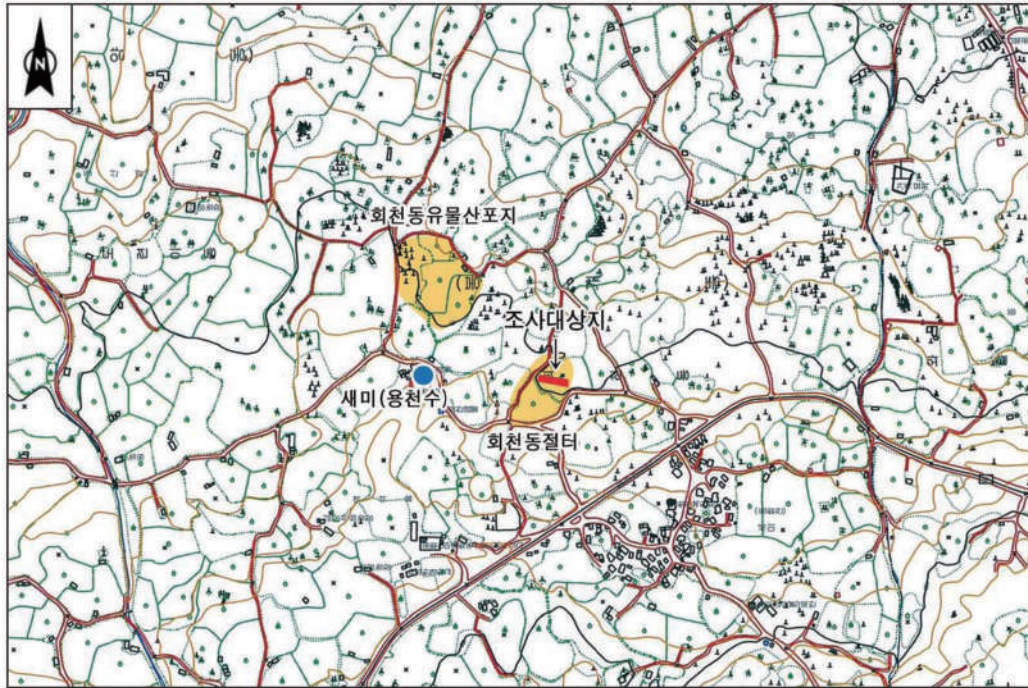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점문소간)확장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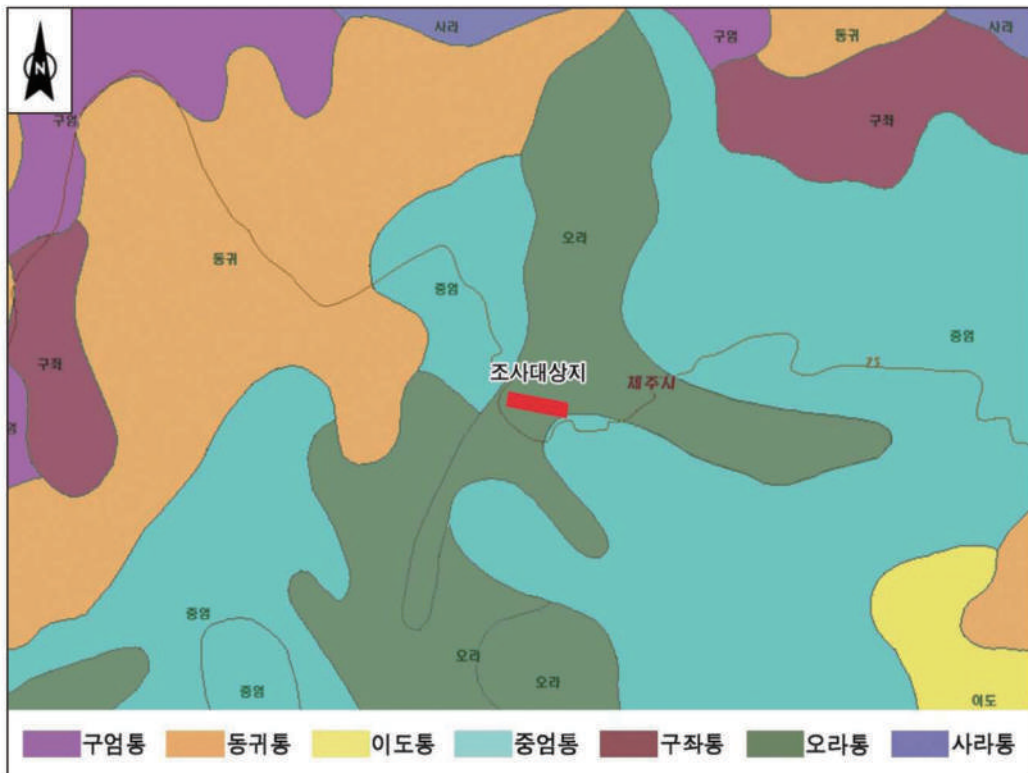
삽도 1. 회천동유적 위성사진(출처 : 네이버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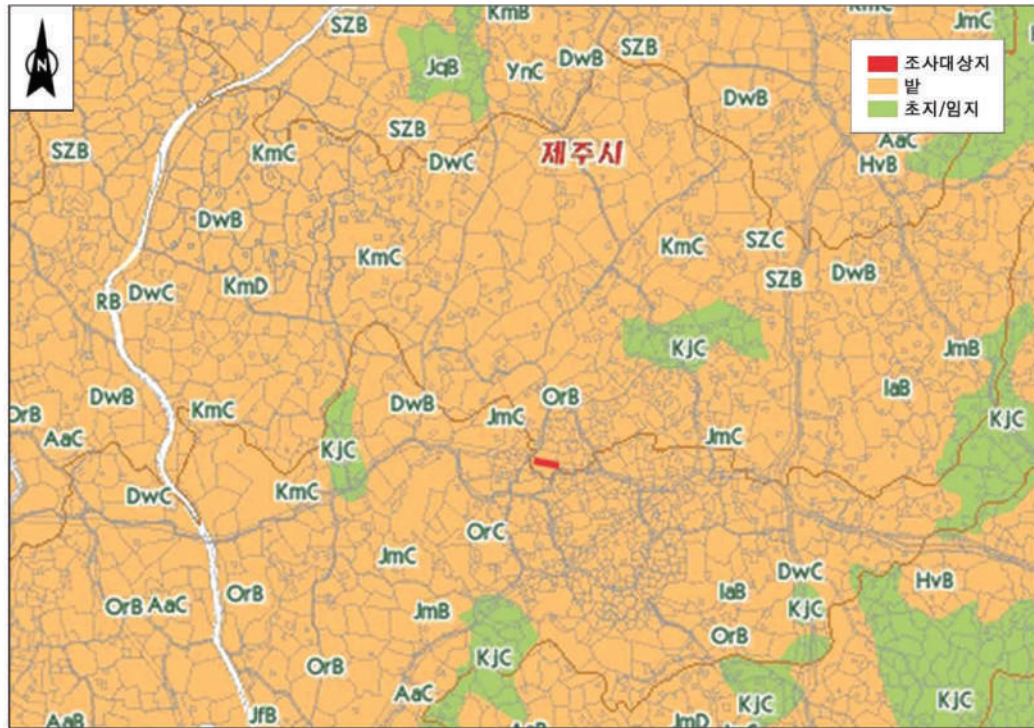
삽도 2. 회천동유적 위성지형도(출처 : 구글맵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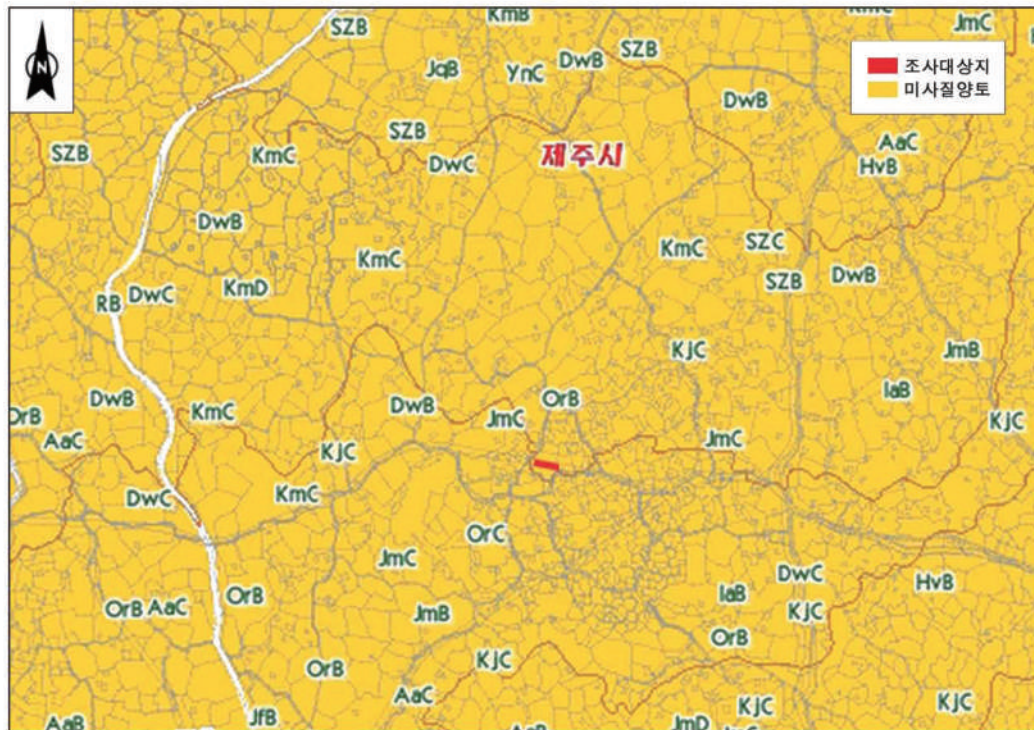
도면 1. 조사대상지 일대 지형 및 용천수 분포현황(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1/5,000 참조 <도엽:336070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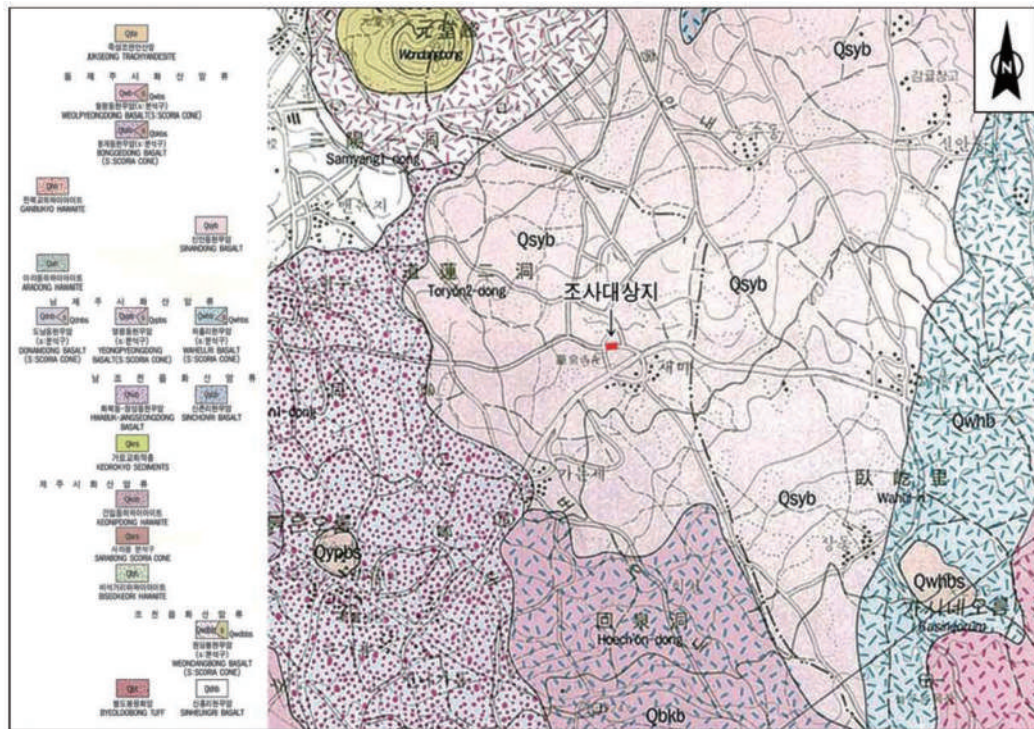
도면 2.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통 분포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에서 일부 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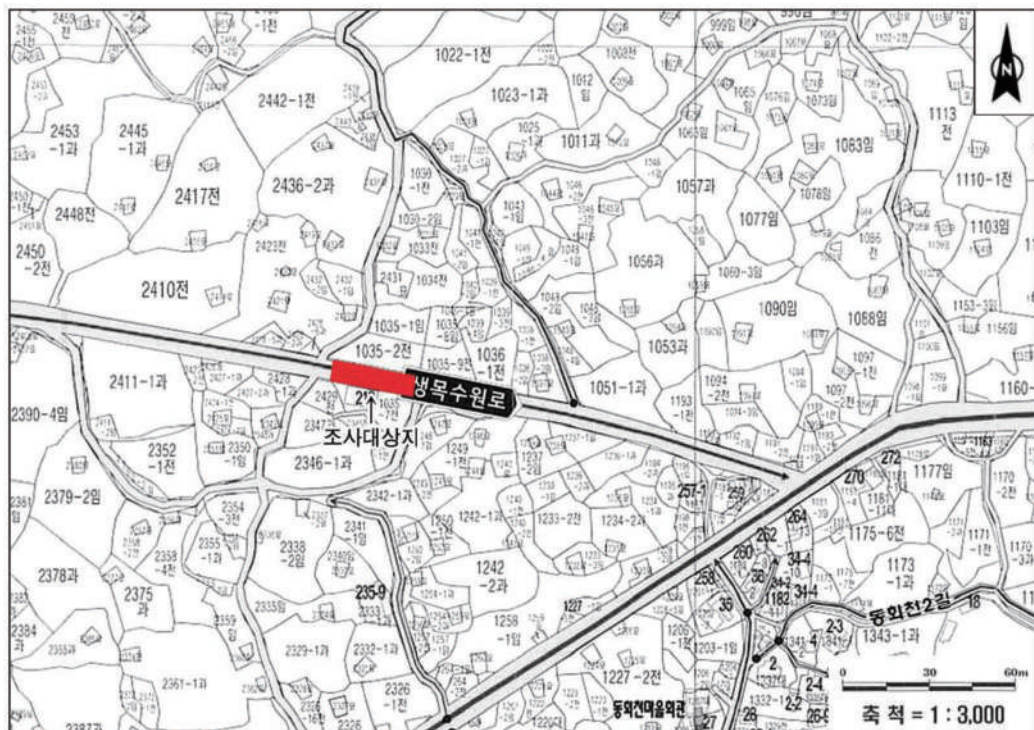
도면 3.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이용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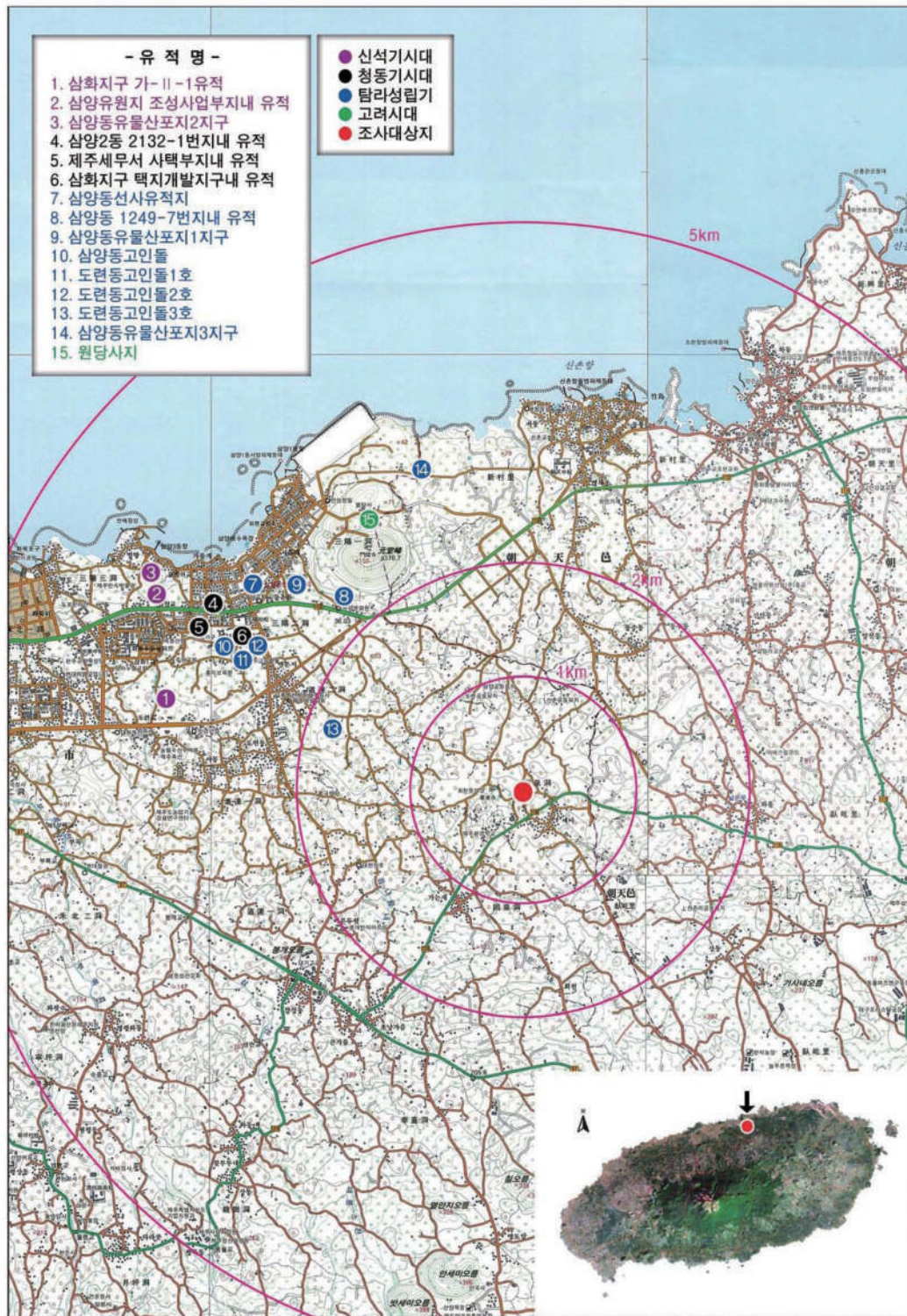
도면 4. 조사대상지 일대 토양 토성도(출처 : 한국토양정보시스템)



도면 5. 조사대상지 주변 지질도(1/25,000)



도면 6. 조사대상지 주변 지적도



탄지대는 해발 100m 내외의 비교적 평탄한 곳으로 신석기시대유적은 해발 3~50m에 집중되어 있다. 이곳은 입지적으로 음용수의 획득과 바다자원에 대한 활용이 용이하고 양질의 점토가 퇴적되어 있어 신석기 시대부터 역사시대까지 지속적으로 선호되었던 곳이다. 내륙 중산간지역은 해발 150~400m 정도에 해당되며 주로 하천을 끼고 형성된 평탄한 대지에 유적이 위치해 있다. 이곳은 해발고도에 따른 식생의 변화로 인해 넓은 초지 및 임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삼양동유적에서는 수혈유구를 비롯하여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등의 토기가 출토되었으며 석기로는 타제석촉이 출토되었다.

삼양유원지내 유적에서는 원형적석유구와 수혈유구가 확인되었다. 유물은 신석기시대 초창기의 고산리식토기단계, 초기의 용기문토기단계, 전기의 압인문토기단계의 토기가 출토되었다. 삼화지구내 유적에서는 토기류는 고산리식토기를 비롯하여 점열문토기 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석기류로는 좀달날몸들을 비롯하여 박편 및 석촉이 확인되고 있다. 자세한 유적현황은 표1)과 같다.

표1) 신석기시대 주변유적 현황

유 적 명	유 형	유구현황	출 토 유 물	비 고
삼양동유적	생활유적	수혈유구 유물산포지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무문양토기, 타제석촉	
삼양유원지내 유적	생활유적	원형적석유구 수혈유구	고산리식토기, 용기문토기, 조우문토기, 박편 등	
삼화지구내유적 (가-11-1)	생활유적	유물포함층	고산리식토기, 점열문토기, 타제석촉 등	

제주도 청동기시대 유적은 해발 100m 미만의 해안 저지대 및 평탄대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는 음용수 획득에 있어서 해안저지대의 해안선을 따라 용천수가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⁴⁾. 청동기시대의 취락은 다음 단계인 탐라성립기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이며 현재 확인된 주거지의 평면형태는 장방형 혹은 방형계를 주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적으로는 삼양동유적군⁶⁾이 확인되고 있다.

삼양동유적(삼화지구)에서는 장방형주거지를 비롯하여 방형주거지와 다수의 수혈유구가 확인되었으며, 유물로는 공렬토기, 각목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및 방추차와 유구석부, 편인석부, 마제석검, 석촉 등이 출토되었다. 자세한 유적현황은 표2)와 같다.

4)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나지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호남문화재연구원.
국립제주박물관, 2008,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가-1구역)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국립제주박물관.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화지구 가-II(1차)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동양문화연구원, 2009, 「제주 삼화택지 개발지구 가-II-1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동양문화연구원.
5) 김경주, 2009, 「유구와 유물로 본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수용과 전개」, 제3회 한국청동기학회 학술대회 발표요지.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나지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호남문화재연구원.
국립제주박물관, 2008, 「제주 삼화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유적(가-1구역)발굴조사 현장설명회자료」, 국립제주박물관.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화지구 가-II(1차)구역 발굴조사 현장설명회 자료」,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표2) 청동기시대 주변유적 현황

유 적 명	유 형	유구현황	출 도 유 물	비 고
제주 삼화지구 가1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등	무문토기(공혈토기·각목토기· 직립구연토기), 마연토기, 유구석부, 편인석부, 마제석검, 석촉, 옥제품	

탐라성립기의 유적으로는 삼양동유적군⁷⁾이 확인되고 있다. 탐라성립기는 한반도에서 소멸한 송국리문화가 강하게 지속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시기이다. 이 시기는 앞선 청동기시대와 비교하여 취락구조와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여 대규모 취락이 조성된다. 취락의 입지를 살펴보면 해안과 직선거리 1km 내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발 30~40m 정도의 비교적 완만한 평탄대지상에 주로 배치되는 공통점을 보여주고 있다⁸⁾.

삼양동유적에서는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이 확인되고 있고 유물로는 삼양동식토기로 불리는 외반구연 및 직립구연토기와 석기류 등이 출토되고 있다. 더불어 삼양동유적에서는 유구석부, 마제석촉, 옥환 등도 출토되었다. 자세한 유적현황은 표3)와 같다.

표3) 탐라성립기 주변유적 현황

유 적 명	유 형	유구현황	출 도 유 물	비 고
삼양동유적	취락유적	주거지, 수혈유구, 지석묘 등	삼양동식토기, 유구석부, 마제석촉, 옥환 등	

고려시대 유적으로는 조사대상지의 북서쪽에 위치한 원당사⁹⁾가 있다. 원당사는 삼양동 원당봉에 위치하고 있다. 부분적인 발굴조사 결과 건물지 2동이 확인되었다. 평기와는 어골문을 비롯하여 모두 39여종이 확인되었으며 막새류는 수막새 2종과 암막새 3종이 확인된다. 한편 도자기류는 청자와 분청사기, 백자를 비롯하여 중국제 청자와 백자도 소량 출토되었다. 청자는 10세기 중반경 제작된 것, 11·12세기 제작된 것, 13~14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구분되는데, 11~12세기에 만들어진 도자기의 양이 가장 많다. 따라서 원당사지 건립시기는 대략 13세기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자세한 유적현황은 표4)와 같다.

7) 濟州大學校博物館, 2001, 『濟州三陽洞遺蹟-Ⅱ・Ⅲ地區』, 濟州大學校博物館.

濟州大學校博物館, 2002, 『濟州三陽洞遺蹟-Ⅰ・Ⅴ地區』, 濟州大學校博物館.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8, 「제주 삼양1동 1249-7번지 단독주택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2009, 「제주 삼양선사유적지 관리사무소 신축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탐라매장문화재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삼양동 주민센터 신축부지내 유적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제주문화유산연구원, 2009, 「도시우회도로(도련사거리-삼양검문소간)확장사업부지내 문화재 발굴조사 간략보고서」, 제주문화유산연구원.

8) 김경주, 2009, 「고고학으로 본 탐라-2000년대 발굴조사 성과를 중심으로」, 『섬, 흙, 기억의 고리』, 국립제주박물관.

9) 제주문화예술재단, 2007, 『元堂寺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대학교박물관, 1988, 『水精寺・地畵調査報告書』, 제주대학교박물관.

표4) 고려시대 주변유적현황

유 적 명	유 형	유구현황	출 토 유 물	비 고
원당사지	사찰유적	건물지	막새, 평기와, 철자, 분청사기, 백자	

조사대상지를 포함하여 그 주변으로 회천사지 추정터 및 유물산포지가 있다. 조사대상지의 지표에서는 고려청자, 조선시대의 분청사기, 조선백자, 절그릇, 기와편이 확인되고 있다. 용천수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사찰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¹⁰⁾.

3. 회천동 마을의 형성과 그 연혁

회천동은 봉개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옛날에는 ‘근세모을·근쇄모을(지금의 西回泉), 세미모을(지금의 東回泉), 드르세미모을(野生洞)’ 등이 있었다¹¹⁾.



삼도 3.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 나타난 천미촌(泉味村)과 세초촌(細草村)

1678년 이후부터 1700년 사이에 제작한 「탐라도(耽羅圖)」에는 세미모을(泉味村)과 근세모을[細草村]로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31년 후 숙종 35년(1709) 1월부터 숙종 42년(1716) 사이에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 중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¹²⁾에는 천미촌(泉味村)·매둔지촌(每敦地村)·도련평촌(道連坪村)·세은쇄촌(細殷刷村)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있다.

이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해동지도(海東地圖)』에 의하면, 숙종 35년(1709) 1월부터 숙종 42년(1716) 사이에는 삼소

10) 濟州大學校博物館, 1998, 『文化遺蹟分布地圖 濟州市』.

11) 오창명, 1998, 『제주도 이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 출판부, 258-260 페이지.

오창명, 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세림원색인쇄사, 77-79 페이지.

오창명, 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I』, 행정명사·제주시편, 제주대학교 출판부, 472-476 페이지.

12) 『해동지도(海東地圖)』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①·②의 범례(凡例)에 의하면, “耽羅兩地圖 皆是本邑印本 而詳略不同 并存以備參考”라는 기사가 있다. 이 기사에 나타난 구지도(舊地圖)는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의 「한라장축(漢拿壯驢)」이며 신지도(新地圖)는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 필자주이다. 이 두개의 지도는 제주목(濟州牧)의 판(版)이 박힌 인쇄본(印刷本)이다. 더욱이 이 두개의 지도는 상세함과 간략함이 서로 같지 않았다. 이에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①·② 「해동지도(海東地圖)」는 함께 존재한 것을 참고하여 갖추었다. 또한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①·② 「해동지도(海東地圖)」에는 「만호(萬戶)가 둘(二) 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면, 수산조방장(水山助防將)이 수산만호(水山萬戶)로 승격(陞格)된 것이 숙종(肅宗) 31년(1705)이며 수산만호에서 수산조방장으로 환원된 것이 숙종 44년(1718)이다. 게다가 차귀조방장(遮歸助防將)이 차귀만호(遮歸萬戶)로 승격된 것이 숙종 32년(1706)이며 차귀만호에서 차귀조방장으로 환원된 것이 숙종 42년(1716)이다. 특히 「탐라지도병서(耽羅地圖并序)」는 숙종 35년(1709) 1월에 작성되었다. 그러므로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①·② 「해동지도(海東地圖)」는 숙종 35년(1709) 1월 이후부터 숙종 42년(1716) 사이에 제작된 지도임을 추정할 수가 있다.



삽도 4. 1709년 1월부터 1716년 사이에 제작된 『제주삼현도(濟州三縣圖)』, 『해동지도(海東地圖)』에 나타난 천미촌(泉味村)·매둔지촌(每敦地村)·도련평촌(道連坪村)·세은쇄촌(細殷刷村)

내[三所川]를 경계로 하여 동쪽에 천미촌(泉味村)·매둔지촌(每敦地村)·도련평촌(道連坪村)·세은쇄촌(細殷刷村)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다가 56년 후인 영조 41년(1765)부터 영조 42년(1766) 사이에 편찬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¹³⁾ 권5 「제주(濟州)-면촌(面村) 증(增)」에 ‘중면(中面)에는 소면(小面)이 3개가 있다. 3개의 소면으로는 중좌면(中左面), 주중면(州中面), 중우면(中右面)이 있다. 이 가운데에 중좌면(中左面)에는 별도(別刀)·서홀개[鋤訖浦]·도련평(道連坪)·천미(泉味)·외호홀(臥乎訖)·세은쇄(細隱刷)·상봉개(上奉蓋)·하봉개(下奉蓋)·무등천(無等川)·별라화(別羅花) 등 10개 마을이다¹⁴⁾’ 라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영조 41년(1765) 8월부터 영조 42년(1766) 6월 사이에 천미(泉味) 마을과 세은쇄(細隱刷) 마을로 나타나고 있다. 이 당시의 제주목에 대면(大面)은 4개에 풍헌(風憲) 각 1인이 있다. 소면(小面)에는 12개에 약정(約正) 각 1인이 있으며 81개 마을에는 마을마다 경민장(警民長)·권농(勸農)·기찰관(機察官)·포도(捕盜)·존위(尊位)·동장(洞長)·이임(里任)·색장(色掌)·지심(指審)·유사(有司)가 각 1인이 있어 모두 서무(庶務)를 담당했다¹⁵⁾.

13)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는 영조 41년(1765) 8월부터 영조 42년(1766) 6월 사이에 윤시동(尹耆東) 제주목사가 편찬했다.

14)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濟州-面村 增」,

中面 小面 三 中左面 州中面 中右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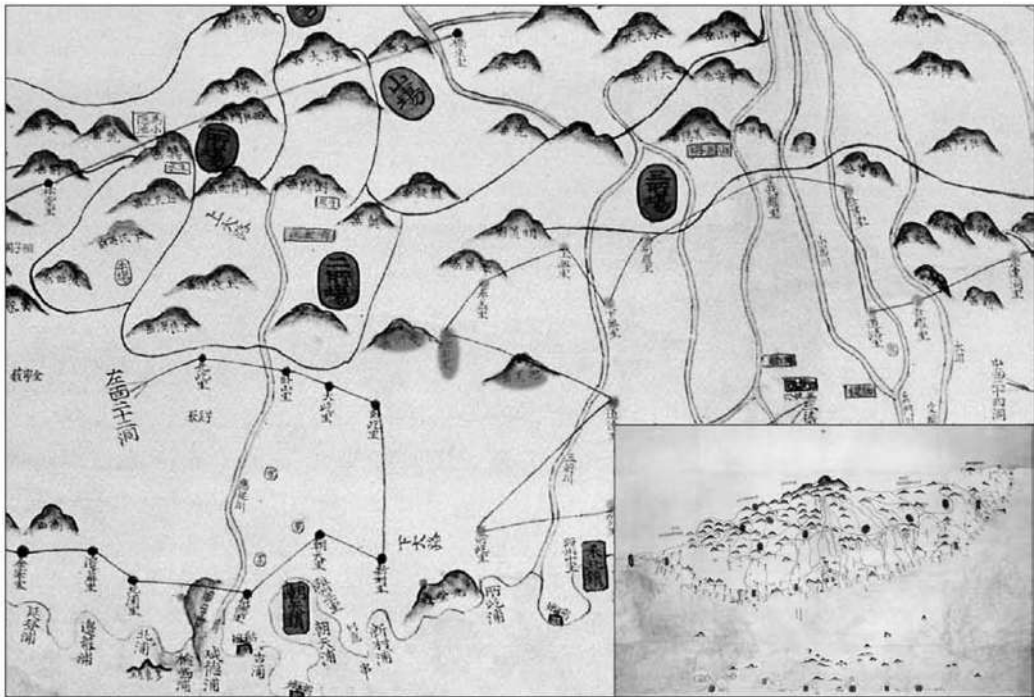
中左面 別刀 鋤訖浦 道連坪 泉味 臥乎訖 細隱刷 上奉蓋 下奉蓋 無等川 別羅花 合十里.

그러다가 20년 후 정조(正祖) 9년(1785) 2월 이후에 편찬한 『제주읍지(濟州邑誌)』 「방리(坊里)-중면(中面)」에는 「**굵세모을**(細刷里)은 제주 동남쪽 15리의 거리에 있다. 백성의 집(民戶)은 44호이며 남자가 91명이고 여자는 139명¹⁵⁾으로 남녀 합계가 230명이다'. 또 「세미모을[泉味里]은 제주 동남쪽 21리의 거리에 있다. 백성의 집은 36호이며 남자가 77명이고 여자는 101명¹⁷⁾으로 남녀 합계가 178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게다가 41년 후인 순조(純祖) 26년(1826)에 작성된 『감시절목(減柴節目)』¹⁸⁾에는 세쇄(細刷)¹⁹⁾모을로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 46년 후인 1872년에 제작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도 그스네오름(曳川岳), 세천리(細泉里), 세미오름(思美岳)이 표기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를테면 1872년에 제작한 「제주삼읍전도(濟州三邑全圖)」와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세천리(細泉里)는 세미모을[泉味里]과 굵세모을[細刷]을 합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18년 후 고종(高宗) 27년(1890) 『경인십이월일 삼읍환폐급서막척지절목(庚寅十二月日 三邑



삽도 5. 1872년에 제작한 「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그스네오름[曳川岳], 세천리[細泉里], 세미오름[思美岳]

15) 『增補耽羅誌』 「濟州 - 面村(增)」

○ 凡州大面四 風憲各一人 小面十二 約正各一人 八十一里 每里警民長勸農機察官捕盜尊位洞長里任色掌指審有司 各一人 共掌庶務.

16) 『濟州邑誌』 「坊里 - 中面」,

細刷里 東南距十五里 民戶四十四 男九十一 女一百三十九.

17) 『濟州邑誌』 「坊里 - 中面」,

泉味里 東南距二十一里 民戶三十六 男七十七 女一百一.

18) 『감시절목(減柴節目)』은 순조 26년(1826)에 관(官)에서 받아들이던 땃감을 절감하는 절목이다.

19) 『減柴節目』,

下道 上道 細花 坪岱 槐伊 魚等 無注 北浦 咸德 新村 道連 細刷 奉蓋 所屹 下無 上無 別羅 臥屹 右十八里 永減燒木 只擇青草.

選弊及庶糗革祛節目』「본주(本州) - 중면(中面)」에는 도래세미마을[回泉里]의 인구가 277명²⁰⁾이었다. 고종 27년(1890)에 ㄱ는세미마을[細泉里]은 '도래세미마을[回泉里]'로 바꾸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로부터 14년 후 광무(光武) 8년(1904)에 광무(光武) 8년(1904)에 편찬한 『삼군호구가간총책(三郡戶口家間摺冊)』「제주군(濟州郡)-중면(中面)」에는 '도래세미[回泉]'의 연기가 나는 집(煙家)은 94호다. 남자 166명과 여자 146명을 합하여 남녀 합계는 312명이다. 초가집은 295칸이다²¹⁾ 라고 기록되어 있다. 1914년에 제주군 중면 회천리를 제주군 제주면 회천리라 하였다. 1919년에 제작한 「제주지도(濟州地圖)」를 통하여 행정명은 도래세미마을[回泉里]이고 그 안에 ㄱ는세미마을[細味洞], 세천동(細泉洞)과 드르생이마을[野生洞]이라는 자연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0년 후인 1929년에 당시 제주면(濟州面)에 회천마을의 호수는 161호이며 남자가 320명이고 여자는 332명으로 남녀 합계가 652명²²⁾이었다. 1930년에는 회천마을의 호수는 161호이며 인구수가 844명²³⁾이었다. 1년 사이에 인구수가 92명이 증가하였음을 드러내고 있다.

25년 후 1955년 제주시에 편입되어 회천동이라 하였으며 1962년에 행정상 봉개동에 소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삽도 6. 1919년에 제작한「제주지도(濟州地圖)」에 나타난 도래세미마을[回泉里], ㄱ는세미마을[細味洞], 세천동(細泉洞), 드르생이마을[野生洞]



삽도 7. 회천동 절터 전경

20) 『庚寅十二月日 三邑選弊及庶糗革祛節目』「本州-中面」,
回泉 人口二百七十七 分米三十石四斗二升八合.

21) 『三郡戶口家間摺冊』「濟州郡 - 中面」

回泉 烟家九十四戶 男一百六十六口 女一百四十六口 合三百十二口 草家二百九十五間.

22) 善生永助, 『濟州島生活狀態調査』「II. 部落, 濟州面」.

23) 高嶺鍾, 『濟州島便覽』「濟州面」.

Ⅲ. 조사방법 및 총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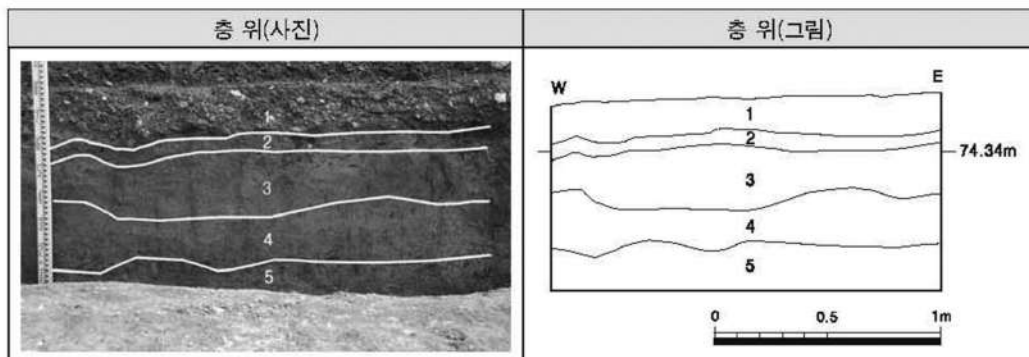
Ⅲ. 조사방법 및 층위

1. 조사방법

조사대상지는 도련~동회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구간 중 회천동 1035-2번지에 해당하며 동서장축의 형태를 띠고 있다. 표토의 제거는 분포조사 당시 확인된 토층을 기준으로 순차적인 전면제토작업을 실시하였다. 문화층이나 유구의 어깨선이 확인되는 면까지 제토를 실시하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생토면까지 제토를 실시하였다. 제토작업은 중장비를 이용하였으며 정리 작업 및 유구·유물 확인작업은 인력을 투입하여 조사하였다. 확인된 유구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4' 자 독이나 중앙에 '1' 자의 독을 남긴 후 조사를 진행하였다. 독 제거 전에 층위도면과 사진촬영 및 도면작업을 하였고 레벨링 작업을 실시한 후 내부조사를 실시하였다. 출토유물의 경우 대부분 파편으로 확인되고 있어 도면작성과 사진촬영 후 수습하였으며 최종적으로는 항공촬영을 실시하여 전체적인 유구분포현황을 기록하였다.

2. 층위

조사대상지는 동쪽과 서쪽은 지대가 높고 남에서 북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계곡부를 형성하고 있다. 조사대상지 중앙부와 서쪽부분은 암반지대가 확인되고 있으며 동쪽으로 퇴적상태가 양호한 양질의 점토층이 확인되고 있다. 층위는 퇴적상태가 양호한 남쪽 경계부분의 하수관이 위치한 지점을 기준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도로매립층 하단으로 구지표층 - 암갈색사질점토층 - 황갈색사질점토층 - 황갈색점토층 순으로 모두 5개의 층으로 퇴적되어 있었다. 3층인 암갈색사질점토층에서는 소토와 목탄이 소량 혼입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자기편 및 도기편이 확인되고 있다. 4층 황갈색사질점토층은 3층보다 점성이 강하며 소토와 목탄을 소량 함유하고 있다. 5층 황갈색점토층은 생토층이며 현무암 피석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지 서쪽과 중앙으로 현무암반이 확인되고 있으며 기반층에 해당한다.



삽도 8. 조사대상지 남동쪽 토층 단면

IV.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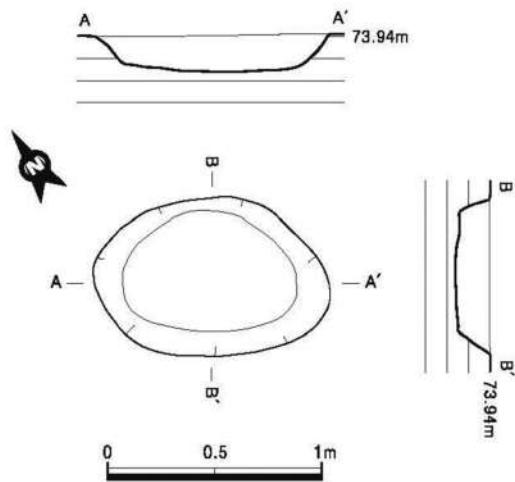
IV. 조사내용

1. 수혈유구

1) 1호 수혈유구

(1) 유구(도면: 8, 도판: 3-①~③)

조사대상지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깝다. 장축방향은 $N55^{\circ}W$ 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장축 110cm, 단축 72cm, 깊이 16cm이다. 내부퇴적토는 미량의 소토와 목탄이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된 단일층이다. 벽면은 생토층인 황갈색점토층을 사선방향으로 굴착하였으며 다른 시설 없이 벽체로 활용하였다.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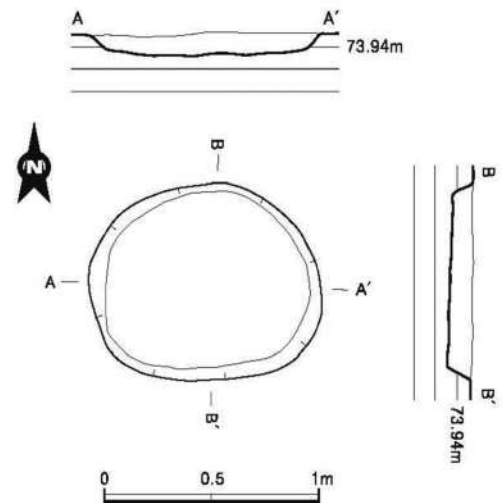


도면 8. 1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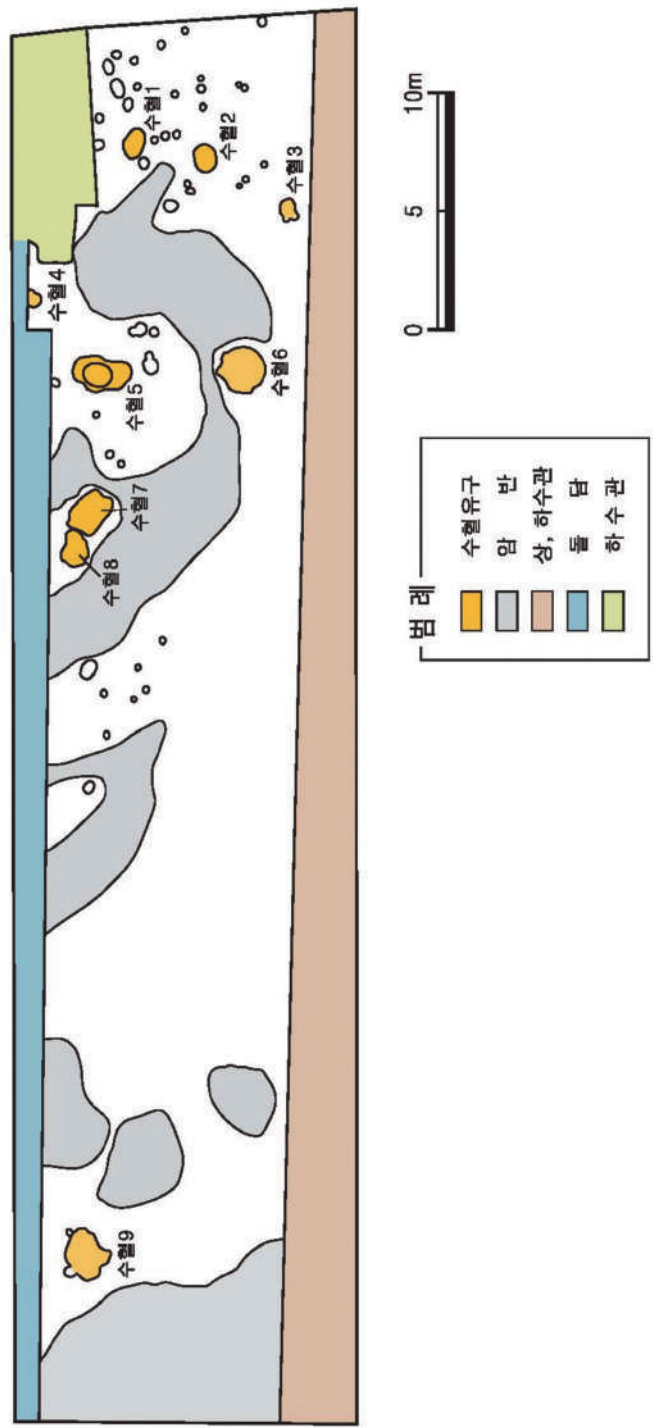
2) 2호 수혈유구

(1) 유구(도면: 9, 도판: 3-④~⑥)

조사대상지의 동쪽에 해당하며 1호 수혈유구에서 남쪽으로 약 2m 가량 떨어져 위치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88^{\circ}W$ 를 이루고 있다. 유구의 규모는 장축 108cm, 단축 90cm, 깊이 10cm이다. 내부퇴적토는 미량의 소토와 목탄이 함유된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된 단일층이다. 벽면은 생토층인 황갈색점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어깨선에서 바닥까지 사선방향으로 굴착하였다.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비교적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9. 2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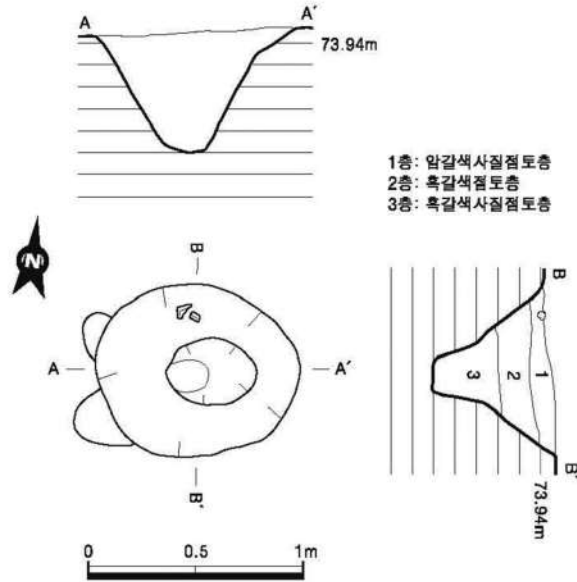


도면 10. 조사대상지 유구배치도

3) 3호 수혈유구

(1) 유구(도면: 11, 도판: 3-⑦~4-②)

조사대상지 동쪽에 해당하며 2호 수혈유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3m 가량 떨어져 위치해 있다. 평면형태는 타원형에 가까우며 남서편으로 주혈 2기와 중복되었다. 장축방향은 N84°E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장축 94cm, 단축 78cm, 깊이 55cm이다. 내부퇴적도는 모두 3개의 층으로 퇴적되어 있다. 1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와 목탄을 함유하고 있다. 2층은 흑갈색점토층으로 현무암 잔자갈이 확인되며 미량의 소토와 목탄이 확인되고 있다. 3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가 확인되고 있다. 벽면은 생토층인 황갈색점토층을 어깨선에서 비스듬히 굴착하다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바닥으로 갈수록 깊어지는 깔대기 모양을 하고 있다.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중앙부로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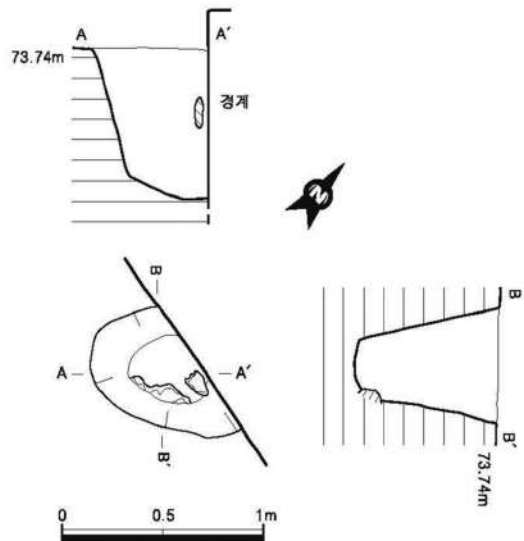


도면 11, 3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4) 4호 수혈유구

(1) 유구(도면: 12, 도판: 4-③~④)

조사대상지 동쪽에 해당하며 1호 수혈유구에서 북서쪽으로 약 7m 가량 떨어져 위치해 있다. 유구는 복편 경계와 맞닿아 있어 일부만 조사가 이루어졌다. 평면형태는 잔존상태로 보아 타원형으로 추정된다. 장축방향은 N50°E를 이루고 있으며 규모는 잔존장축 56cm, 단축 72cm, 깊이 73cm이다. 내부퇴적도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된 단일층이다. 벽면은 생토층인 황갈색점토층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다른 시설 없이 벽체로 활용하였다. 바닥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비교적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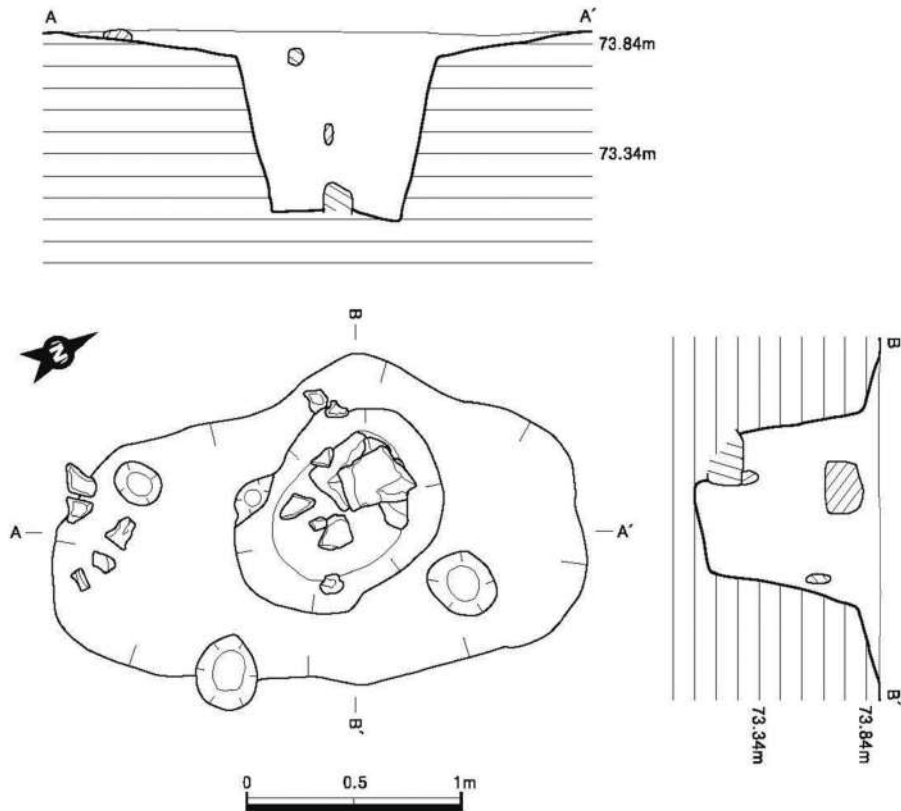


도면 12, 4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5) 5호 수혈유구

(1) 유구(도면: 13, 도판: 4-⑤~⑦)

조사대상지 동쪽에 해당하며 4호 수혈유구에서 남서쪽으로 약 3m 가량 떨어져 위치해 있다. 평면형태는 말각장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26°E를 이루고 있다. 유구의 규모는 장축 244cm, 단축 152cm, 깊이 82cm이다. 내부퇴적토는 흑갈색사질점토가 퇴적된 단일층이다. 유구는 중심부로 갈수록 깊어지며 유구 내부 중심부로 소형의 수혈이 확인되고 있다. 수혈의 규모는 장축 106cm, 단축 76cm, 깊이 72cm로 흑갈색사질점토로 수혈과 동일하다. 벽면은 생토층인 황갈색점토층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여 다른 시설 없이 벽체로 활용하였다. 동쪽벽면에는 현무암 암반이 노출되어 그대로 벽체로 이용하고 있다. 중앙부로 현무암 활석이 퇴적토와 혼재되어 퇴적되어 있어 폐기시 인위적으로 매립을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면은 비교적 편평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중앙부로 현무암 암반이 돌출되어 있다. 유물은 신석기시대의 무문양토기편이 잔편으로 확인된다.



도면 13. 5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6) 6호 수혈유구

(1) 유구(도면: 15, 도판: 4-⑥~5)

조사대상지 동쪽에 해당하며 5호 수혈유구에서 남쪽으로 약 3.5m 떨어져 위치해 있다. 평면형태는 말 각방형에 가까우며 장축방향은 N13°W를 이루고 있다. 유구의 규모는 장축 182cm, 단축 180cm, 깊이 102cm이다. 유구의 내부에는 동서방향으로 주혈 2기가 배치되었다. 주혈의 깊이는 20cm 내외이며 흑갈색사질토가 퇴적되어 있다. 내부토는 소량의 소토와 목탄을 포함하는 흑갈색사질점토층과 벽면으로 5cm 두께로 확인되는 황갈색사질점토층의 2개 층위로 나눌 수 있다. 벽면은 생토층인 황갈색점토층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벽면에 노출된 현무암반에 의해 불규칙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유구 내부로 현무암 활석을 비롯하여 천석이 유구 중앙부에 집중적으로 퇴적되어 있어 폐기시에 인위적으로 매립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바닥면은 현무암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암반 사이로 생토층이 확인된다. 유물은 폐기된 활석 사이에서 신석기토기 구연부편과 고석 1점 등 2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1. 口緣部片 (도면: 14-1, 도판: 5-⑥-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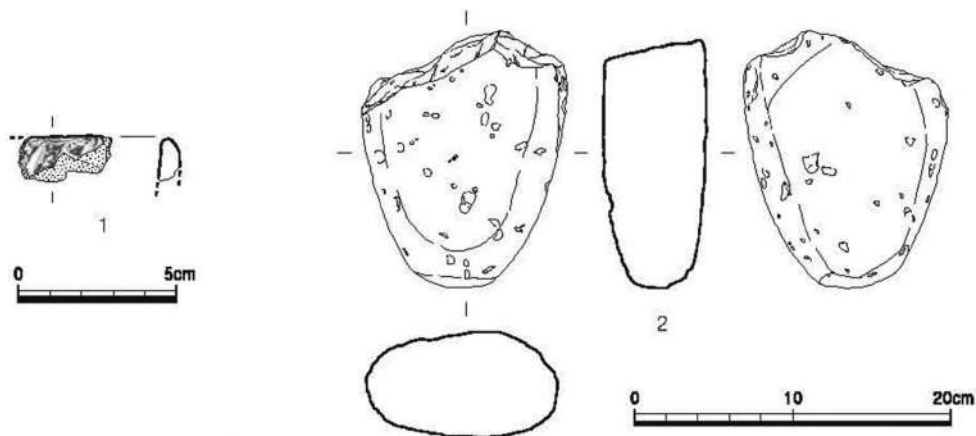
발형으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다. 구순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문양대는 구연 상단부에 있으며 사선 형태의 단사선을 시문한 압인문토기이다. 내면에서 황으로 조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현무암세석립과 사립이 보강재로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 명갈색, 속심 흑갈색을 띠고 있다.

現高 1.4cm, 厚 0.6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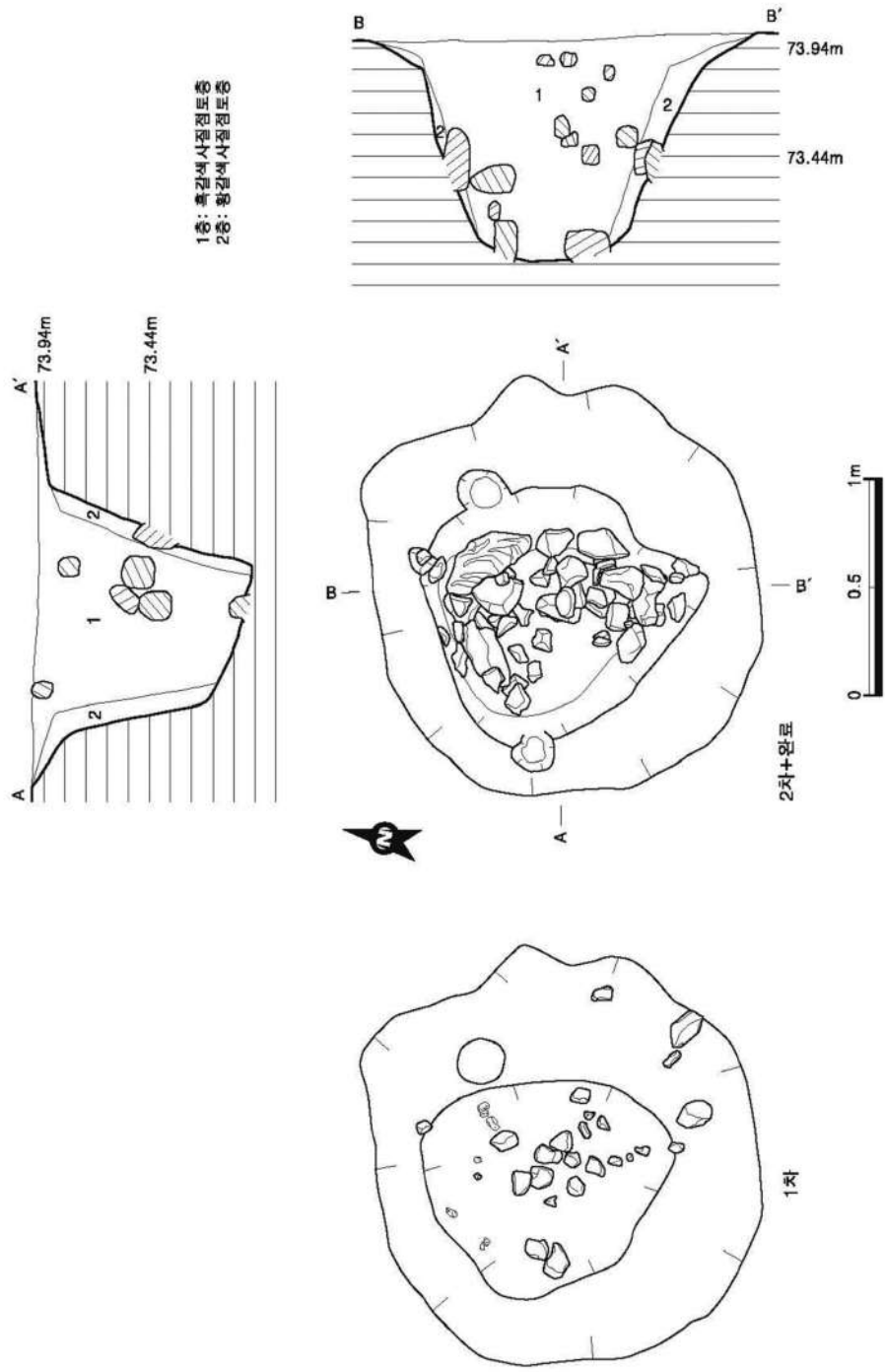
2. 敲石 (도면: 14-2, 도판: 5-⑥-2)

다공질 현무암제 고석으로 반파되었다. 평면형태는 장타원형으로 추정며 단면형태는 타원형이다. 전체적으로 피열된 흔적이 관찰된다. 하단에 고타흔이 관찰되고 있다.

長 15.1cm, 幅 12.0cm, 厚 6.3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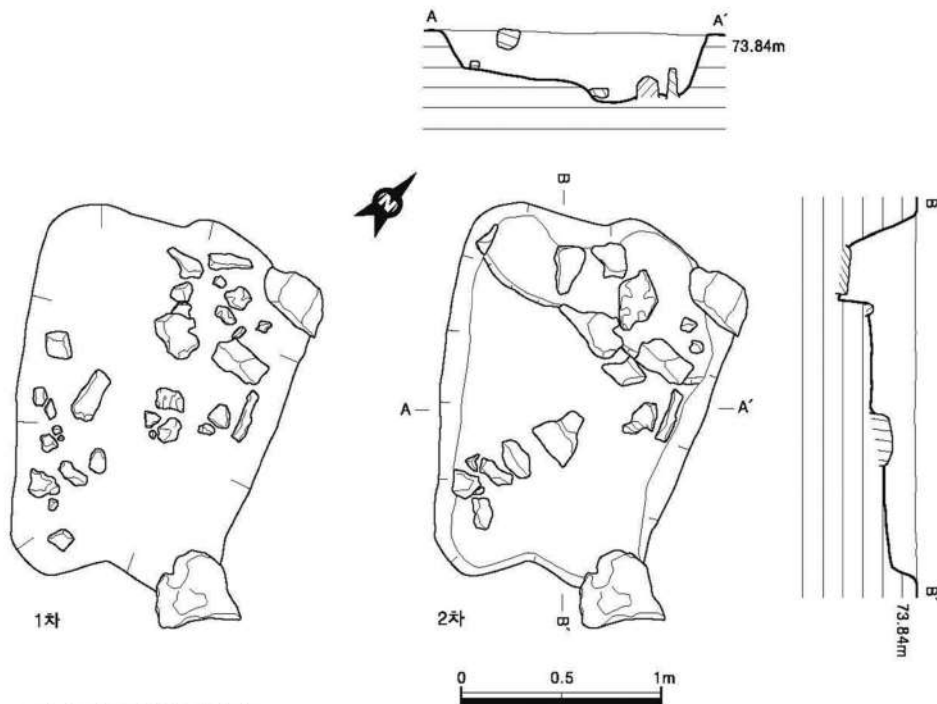
도면 14. 6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7) 7호 수혈유구

(1) 유구(도면: 16, 도판: 6-①~③)

조사대상지 동쪽에 해당하며 5호 수혈유구에서 서쪽으로 약 4m 가량 떨어져 위치해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N44°W를 이루고 있다. 유구의 규모는 장축 184cm, 단축 134cm, 깊이 32cm이다. 벽면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되었으나 일부 현무암반에 의해 불규칙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수혈의 내부에는 남쪽 바닥으로 현무암 암반이 들어나 더 이상 굴착이 불가능하며 북쪽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내부토는 소량의 목탄과 소토를 함유하는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단일층이다. 바닥면은 현무암 암반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유물은 내부토에 혼재되어 소량의 토기편이 잔편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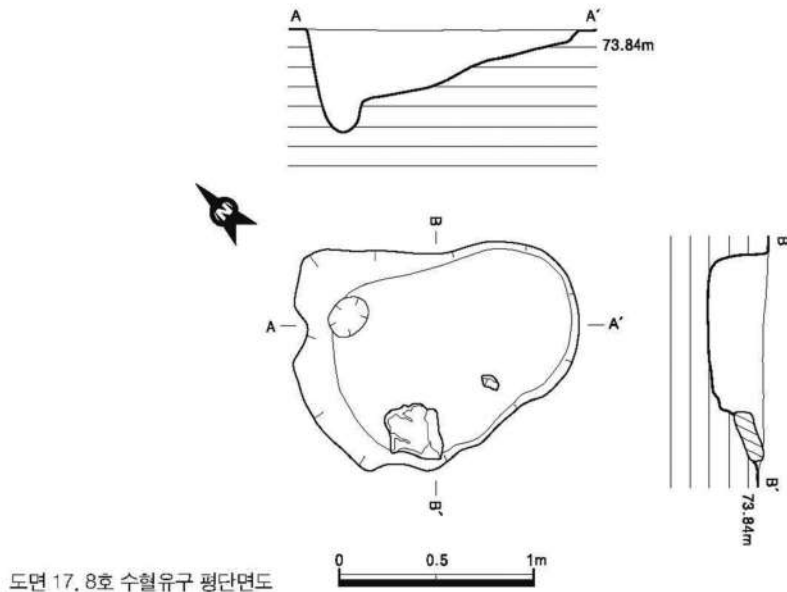


도면 16. 7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8) 8호 수혈유구

(1) 유구(도면: 17, 도판: 6-④~⑥)

조사대상지 동쪽에 해당하며 7호 수혈유구의 북쪽에 인접해 있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N44°W이다. 유구의 규모는 장축 143cm, 단축 104cm, 깊이 30cm이다. 수혈의 내부는 북쪽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있으며 내부토는 소량의 소토와 목탄을 함유한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단일층이다. 벽면은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으며 북벽은 거의 수직으로 굴착한 반면에 남벽은 사선으로 굴착되었다. 바닥면은 북편으로 완만하게 경사면을 이루다 오목하게 깊어지고 있으며 생토층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유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도면 17. 8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9) 9호 수혈유구

(1) 유구(도면: 18, 도판: 6-⑦~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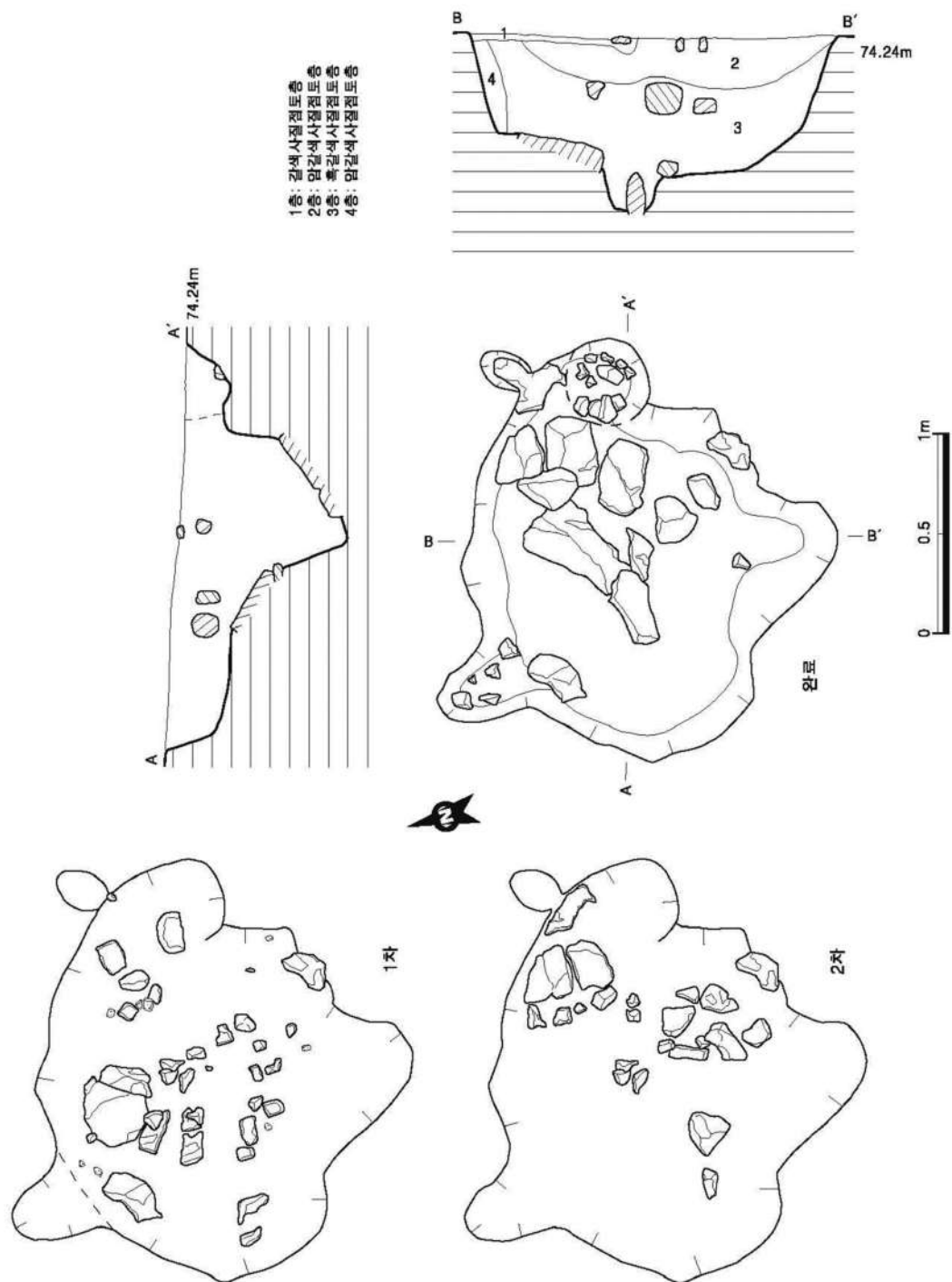
조사대상지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유구는 암반이 발달한 부분 중 일부 토양퇴적이 양호한 곳에서 확인된다. 평면형태는 부정형이며 장축방향은 N14°E이다. 유구의 규모는 장축 193cm, 단축 177cm, 깊이 84cm이다. 수혈의 내부퇴적토는 4개로 나눌 수 있다. 1층은 사질성분이 강한 갈색사질점토층으로 북벽의 상부에서 일부 확인된다. 2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잔자갈과 일부 목탄편을 포함하고 있다. 3층은 흑갈색사질점토층으로 소량의 소토알갱이를 포함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다량의 잔자갈과 20cm 내외의 현무암 할석이 혼재된 상태이다. 4층은 암갈색사질점토층으로 북벽에 인접하여 일부에서 확인된다. 이로보아 주변에 발달한 암반층의 영향으로 인해 북벽에서 남벽 방향으로 자연적인 폐기과정과 함께 인위적인 폐기도 함께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벽면은 생토층인 황갈색점토층을 거의 수직에 가깝게 굴착하였으며 벽면에 노출된 현무암반에 의해 불규칙한 면을 보이기도 한다. 유물은 신석기시대의 횡주어골문의 구연부편 1점과 반파된 굴지구 1점 등 2점이 출토되었다.

(2) 출토유물

3. 口緣部片 (도면: 19-3, 도판: 7-③-3)

소형의 호형토기로 추정되는 구연부편이다. 경부가 길고 경부에서 동체부로 이어지는 각이 그리 크지 않고 완만하게 이어지고 있다. 문양형태는 횡주어골문이다. 문양은 구순부에서 시작하여 경부까지만 한정되어 있고 구순부에서부터 짧은 수직으로 6~7조를 시문한 압인문토기이다. 내면에서는 지두흔이 관찰된다. 태토는 현무암 석립과 사립이 보강제로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속심 적갈색을 띠고 있다.

現高 7.4cm, 厚 0.6cm



도면 18. 9호 수혈유구 평단면도

4. 口緣部片 (도면: 19-4, 도판: 7-③-4)

직립구연 형태를 띠고 있는 구연부편이다. 구순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문양은 구연부에서부터 시작한다. 문양형태는 횡주어골문으로 수직으로 3조를 시문한 압인문토기이다. 태토는 현무암 석립과 사립이 보강재로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이 옅은 적갈색, 속심은 황갈색을 띠고 있다.

現高 3.3cm, 厚 0.6cm

5. 口緣部片 (도면: 19-5, 도판: 7-③-5)

직립구연 형태의 구연부편이다. 구순은 뾰족하게 처리되었다. 문양은 구순 바로 하단에서 시작하며 단치구를 이용하여 수직으로 1조를 시문한 압인문토기이다. 태토는 현무암 사립이 보강재로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황갈색을 띠고 있다.

現高 2.4cm, 厚 0.8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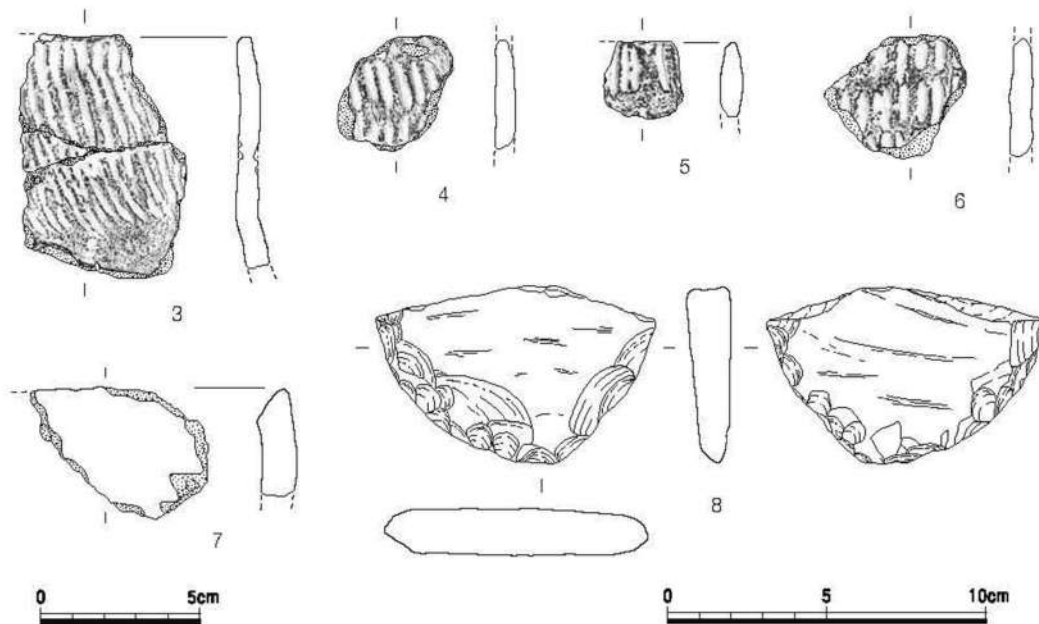
6. 口緣部片 (도면: 19-6, 도판: 7-③-6)

직립구연 형태의 구연부편이다. 구순은 결실되어 형태를 알 수 없다. 문양은 구순 바로 하단에서 시작하고 있다. 단치구를 이용해 수직으로 연속하여 3조를 시문한 압인문토기이다. 문양은 외면 전체에서 확인되고 있다. 태토는 현무암 사립이 보강재로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내외면과 속심 모두 적갈색을 띠고 있다.

現高 3.8cm, 厚 0.6cm

7. 口緣部片 (도면: 19-7, 도판: 7-③-7)

발형으로 추정되는 부문양의 구연부편이다. 구연부에서 살짝 내만하고 있다. 구순은 내만하여 사선 방



도면 19.9호 수혈유구 출토유물

향으로 비스듬히 마무리하였다. 태토는 현무암 사립이 보강재로 혼입되어 있다. 색조는 외면 적갈색, 내면과 속심은 암갈색을 띠고 있다.

現高 3.8cm, 厚 1.0cm

8. 打製石器 (도면: 19-8, 도판: 7-③-8)

안사암제 굴지구로 추정되며 하단 일부만이 잔존한다. 전체적인 형태는 알 수 없으며 전면과 후면은 편평하게 처리되었다. 양측면과 하단에서는 타격에 의한 정면흔이 관찰된다.

長 5.4cm, 幅 8.2cm, 厚 1.3cm

V. 땃음말



V. 맺음말

제주시 회천동유적 발굴조사보고서는 2008년 제주시에서 추진을 시작한 도련-동회천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과 관련되어 2010년에 조사된 신석기시대 유적에 대한 것이다.

조사대상지는 행정구역상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1035-2번지에 해당하며 지리적으로는 북위 33°30'24.6", 동경 126°36'48.7"에 위치하고 있다. 해발고도는 약 75m 가량이며 해안과의 직선거리는 약 3km 떨어져 있는 중산간과 해안의 중간지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조사대상지에서 해안까지는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서쪽으로 약 1.3km 떨어져 '음나물내'가 남에서 북으로 유행하며 해안에 이른다. 해안에 위치한 삼양동은 사적 제416호로 지정된 삼양동선사유적지를 비롯하여 삼화지구유적, 삼양유원지내유적과 같이 신석기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기의 유적이 확인되는 제주도 북동부의 최대유적이 자리한 곳이다. 따라서 회천동유적은 해안에 위치한 삼양동 내 신석기시대 유적과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금번 조사된 회천동유적은 도로개설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유구가 확인되는 부분은 동서로 주행하는 도로 양단에 발달한 계곡의 상층부에서 완만한 경사를 보이며 중앙으로 낮아지는 계곡부로 이어지는 부분이다. 또한 중앙부와 서쪽으로는 암반지대가 확인되고 있으며 동쪽으로 비교적 퇴적상태가 양호한 점토층이 확인되고 있다. 유구는 토양의 퇴적상태가 양호하고 후대의 삭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중심으로 확인된다.

발굴조사결과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는 수혈유구 9기와 주혈 등이 확인되었다. 수혈유구의 규모는 장축이 100~200cm, 단축은 70~180cm로 소형이며 깊이는 대부분 50cm 이상으로 비교적 깊은 편이다. 수혈유구 중 6·7·9호의 경우 유구 내부에는 현무암 할석과 천석이 다량으로 확인되고 있어 매립 당시 일시적인 인위적 폐기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유물을 살펴보면 자기류, 토기류, 석기류 등이 확인된다. 자기류의 경우 지표 및 퇴적층에서 확인될 뿐 이와 관련된 건물지나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는다. 토기류의 경우 대부분 신석기시대에 해당하며 압인수법의 수직단사선문을 보이는 외면의 문양형태로 보아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영선동식토기계통임을 알 수 있다. 석기류는 반파된 굴지구 1점이 확인되었다.

앞서 살펴본 유구와 유물로 보아 회천동유적은 신석기시대 전기에 해당하는 유적이다. 또한 제주도 북부 해안지역에 위치한 동시대 유적들과 관련이 있으며 하천을 이용한 내륙으로의 이동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유적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한정된 조사범위와 함께 유구·유물이 형성하여 적극적인 해석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차후 조사대상지 주변과 하천의 상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다면 인근의 오동동유적과의 비교연구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도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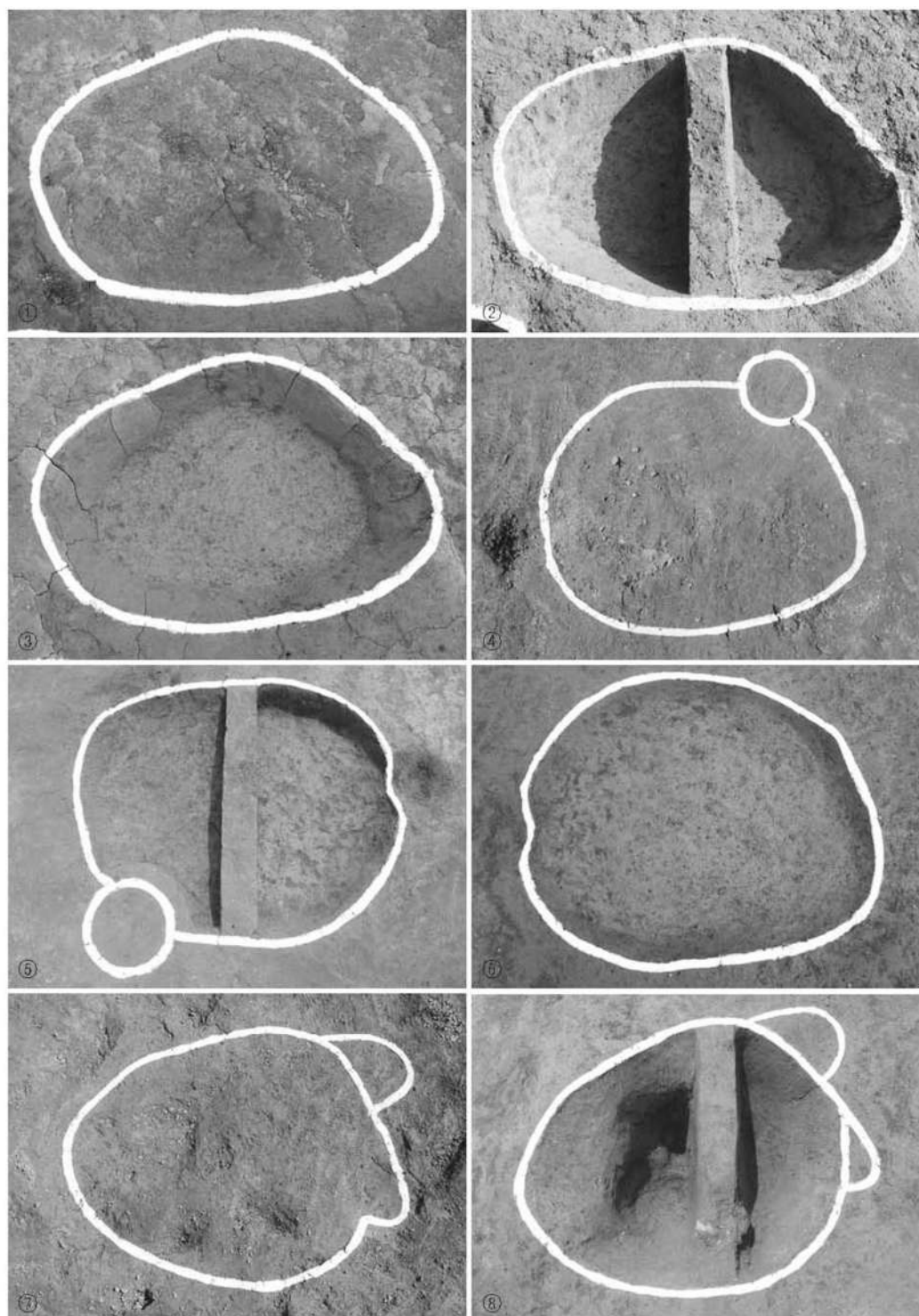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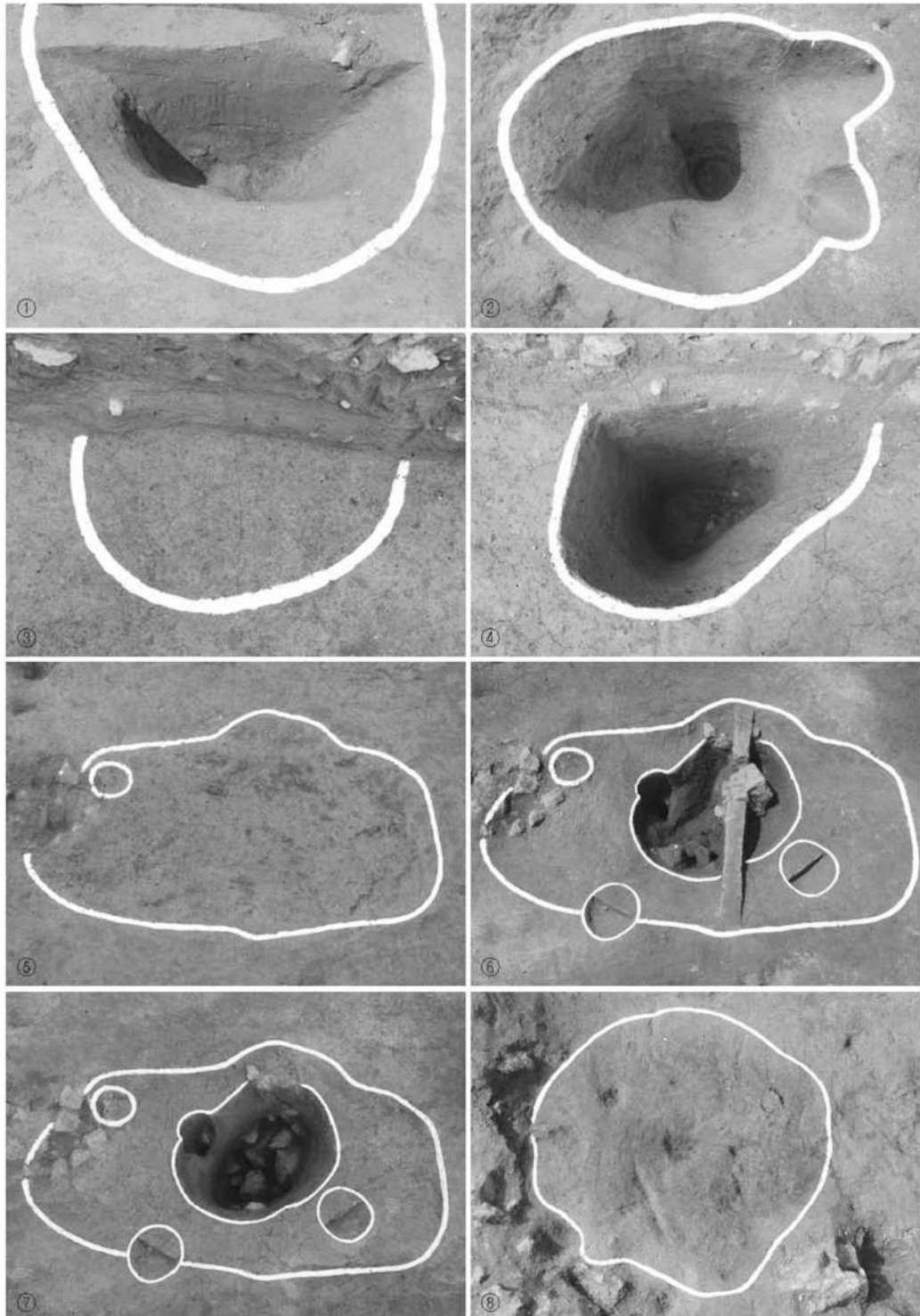
도판 1. ① 조사대상지 원경 ② 전경(공중촬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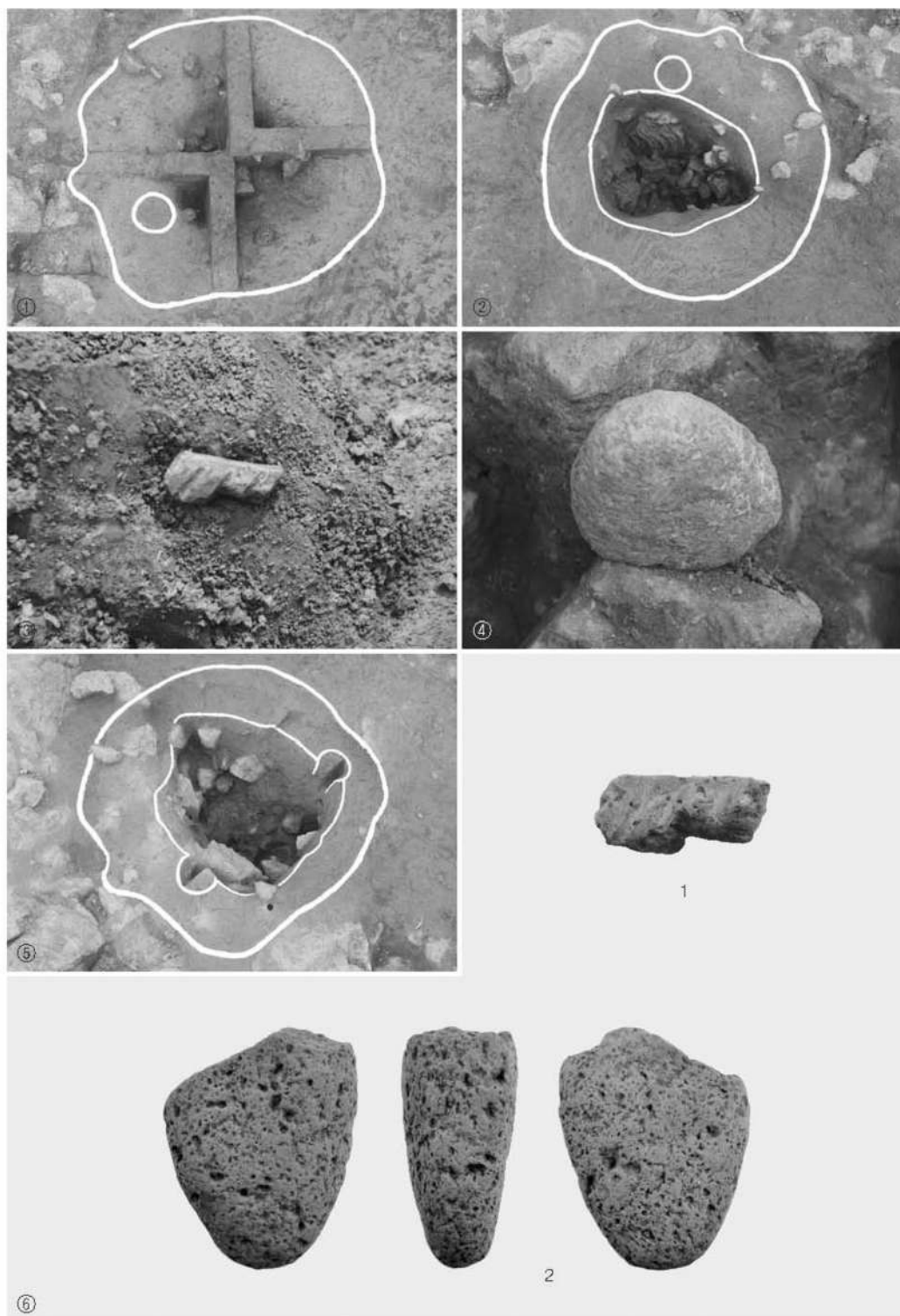
도판 2. ① 조사대상지 전경(동에서) ② 동편 유구밀집 지역(동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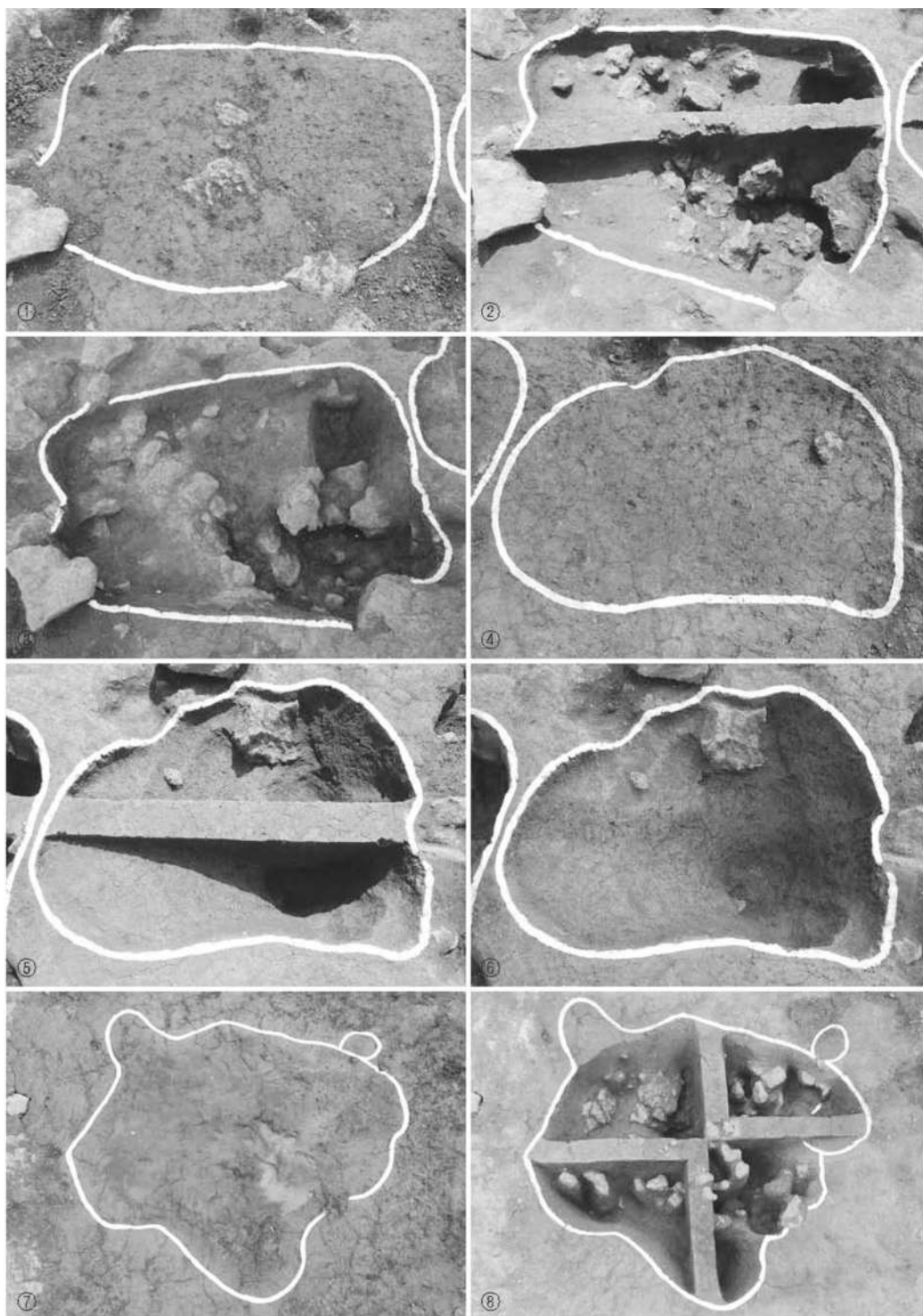
도판 3. ① 1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② 조사중 전경 ③ 조사완료 전경(남에서) ④ 2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⑤ 조사중 전경 ⑥ 조사완료 전경(남에서) ⑦ 3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⑧ 조사중 전경(북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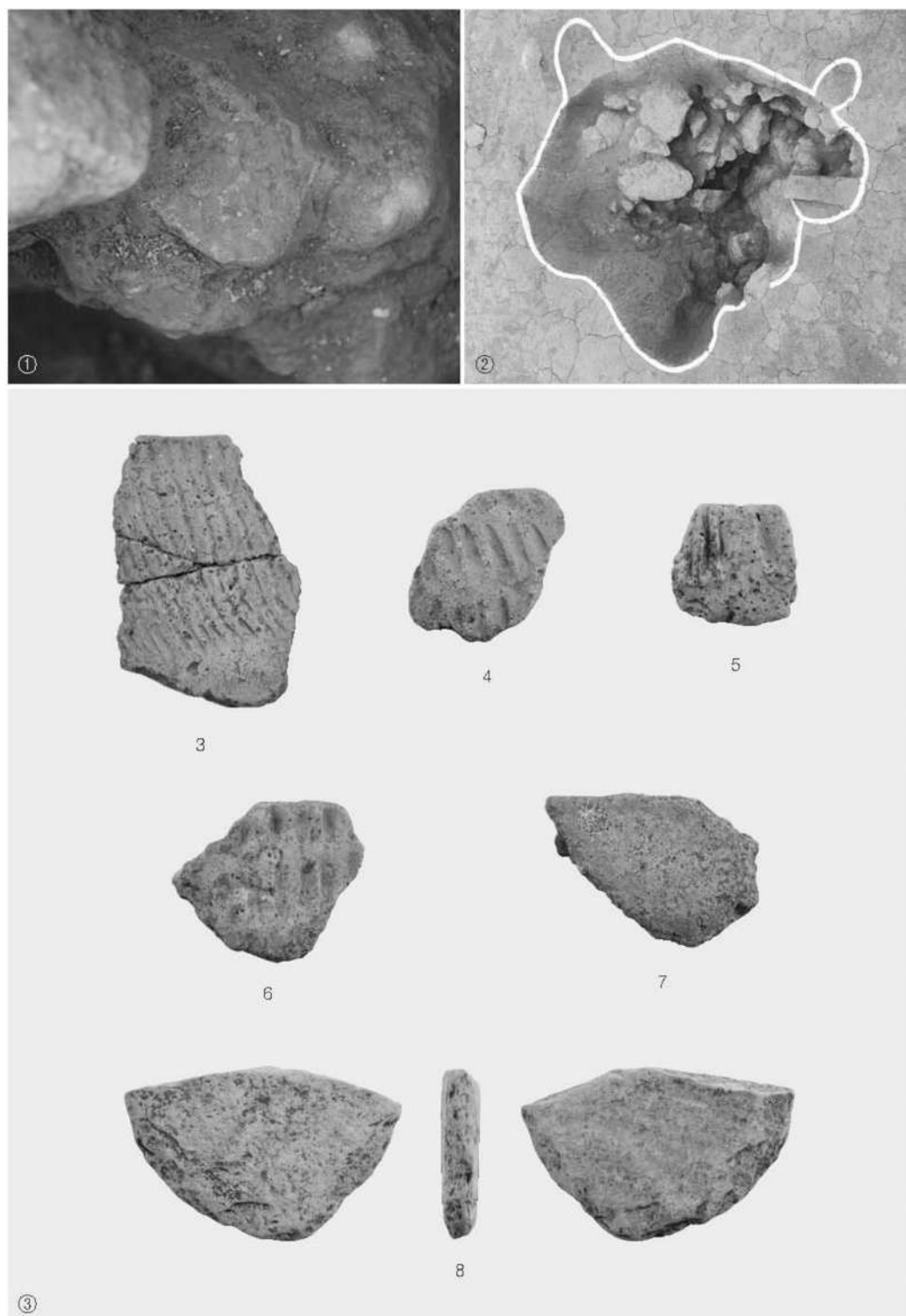
도판 4. ① 3호 수혈유구 토층 단면 ②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③ 4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④ 조사완료 전경(남에서) ⑤ 5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⑥ 조사중 전경 ⑦ 조사완료 전경(동에서) ⑧ 6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북에서)



도판 5. ①~② 6호 수혈유구 조사중 전경 ③~④ 유물 출토 모습 ⑤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⑥ 출토유물



도판 6. ① 7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② 조사중 전경 ③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④ 8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⑤ 조사중 전경 ⑥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⑦ 9호 수혈유구 조사전 전경 ⑧ 조사중 전경(북에서)



도판 7. ① 9호 수혈유구 유물 출토 모습 ② 조사완료 전경(북에서) ③ 출토유물



도판 8. ①-② 현장설명회 모습

發掘調查報告書 抄錄

報告書名	도련~동회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구간내 문화재 발굴조사 보고서 濟州 回泉洞遺蹟 - 1035-2번지				發刊日	2012年 4月 日	
發刊機關	名稱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住所	(690-16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정실2길 3(오라2동 700-7번지)					
	TEL	(064) 712-8362~3			FAX	(064) 712-8361	
執筆・編輯者	방문배, 윤중현, 이용석, 박경민, 강창룡						
調査緣由	도련~동회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구간내에 대한 발굴조사						
發掘調査者	고재원, 방문배, 윤중현, 이용석, 박경민						
所在地番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회천동 1035-2번지						
調査面積	660㎡						
遺構種別	時代 및 年代	類型 및 基數	重要遺物		特記事項		
수혈유구	신석기시대	9기	영선동식토기, 고석, 굴지구 등 8점				

편집후기

- 마을 선조들의 발자취가 담긴 향토지를 발간한다는 것은 중요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발간위원으로 선정되었을 때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커서 어깨가 무거웠습니다. 20년 전 초대 발간위원들이 작업해둔 기초 자료가 큰 힘이 되었습니다.
- 마을주민들이 보관하고 있던 과거 사진 등 소중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그나마 쉬운 편이었습니다. 도서관과 박물관 등을 찾아다니며 우리 마을과 연관된 자료를 찾아내는 작업은 욕심만큼 소득이 없어 아득하기만 했습니다. 마을 자료 수집은 이 책을 발간했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 어렵פות이 오래되었다고 짐작하고만 있던 마을 역사를 옛 문헌기록과 구전수집 작업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리할 있게 돼 기쁩니다. 특히 우리 마을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유적은 흥미로웠습니다. 그것을 밝히는 《제주회천동유적 문화재발굴조사보고서》를 부록으로 실을 수 있도록 허락해준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 과거 마을주민들의 삶과 생활상을 기록으로 정리하노라니,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근면과 협동으로 이겨낸 의지에 존경심을 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이루어낸 마을 발전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 열심히 작업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음을 인정합니다. 향후 후세들이 보완해 더욱 알찬 향토지를 만들어 주리라 믿으며 부족한 부분은 숙제로 남겨둡니다.
-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자료수집에서 정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작업해준 (사)제주미래비전연구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격려사로 힘을 주신 김상오 제주시장님, 축사로 책을 빛내주신 안창남 도의회 운영위원장님, 윤두호 도의회 교육위원님, 최동수 봉개동장님께 이 지면을 빌어 거듭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발간위원 : 강성환, 김순건, 채종국, 부영식, 김재호, 강경석

